

월간 가든인 10월호

October 2014 *Monthly* Gardenin

특집
기사

가을정원, 열매를 수확시켜...



Garden in Horticulture

제철과채류의 보관방법
추석구경의 심는 방법
과실정원의 텃밭
유기농 key hole 가든



Garden Design

Red colour Garden
도시와 컨테이너 조경
영국 헤트윅 경의지의 가을정원
캐나다 뷰차드 가든 before & after

Secret Garden

샌프란시스코의 에카스트 - 목원과 정원 이야기
경 - 천천, 숲을 지킨다
일본의 나무의 원전생태 보고서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Gardenin Information

Garden & Movie, Q&A, Book & Flower Festival, 세계의 축제

정원의 새로운 트렌드 “장식용 Grass의 세계”

Focal Point 정원 디자인의 인기 상승, 선진국형 정원 식재

정원장식용 Grass는 전통적 관목이나 낙엽 관목보다 오래 기간 유용, 정원 공간의 장식을 화려하게, 가을 정원의 극찬을 받으며, 겨울철 정원의 새로운 정원공간 포인트로 인기.

색상도 다양하고, 크기도 각각. 정원 공간에 디자인 연출 가능
그라스 식재의 다양한 품격을 계절마다 즐겨보라
겨울정원 이제 장식용 Grass와 함께 눈 쌓인 정원을 걸어보자



장식용 Grass는 다년생 식물로 정원의 장식요소로 식재 선정하며, 다년생 전체 성장 시기 동안 개화하지 않습니다. 역서 파랑새들, 털수염 풀과 홍피 그라스 등은 가을날 화려한 단풍도 연출 합니다. Grass 정원 식재는 디자인에 따라 주변의 다년생 식물이 휴면기에 들어가는 동안도 계속 연출을 하여 정원의 생동감을 계속 연출하며 겨울 정원의 또 다른 모습은 색이 본 정원사만이 즐기는 장식용 Grass를 소개한다.

전문 정원사는 장식용 Grass의 모든 종류를 일년생, 다년생, 초식, 속근류와 혼합하여 정원 디자인의 화려함을 연출한다.

장식적인 Grass의 식재는 다른 식물과 외 조화에서도 매우 높은 품격의 정원 공간을 연출하며, 장식적인 잔디는 건강한 식물이므로 아주 혹독한 기후에서도 번식이 좋은 정원 식재로 추천됩니다. 정원 속에 살아 움직이는 질감의 요소로 포인트를 주며 가을철 낙엽이 떨어지는 관목대신 새로운 정원 품으로 연출을 찾아낸다. 성장의 크기와 높이의 식물정보를 알고 정원 식재로 사용하면 성장 속도도 빠르게 새로운 즐거움의 정원 디자인을 계절이 바뀔 때 마다 볼 수 있다.

장식용 Grass는 성장이 쉬우며, 다른 식재에 비교하면 관리에도 간단하고 쉽게 이용이 되어 계속 선진국의 가든센터에서는 소비가 높아지는 품목이다.

장식용 Grass의 종류

아이스댄스 Carex : 깨끗한 상록의 덩굴 내음상이 좋아 활엽수 아래 지피용으로 식재 가능
김의털 고슴도치 Festuca : 군락 식재, 열식으로 좋은 건조지용
홍피 Imperata : 붉은 색의 홍피는 군식용으로 적용 가능, 지피용으로 강추
역새 Miscanthus 의 종류 : 역새 그린라이트, 역새 모닝라이트, 무늬역새아재비, 역새파랑새, 무늬역새

관리하기:

매년 봄에 장식적인 잔디를 잘라준다. 땅 위에서 약 10센티 정도를 남기고 절단하여 준다. 지면이 빛을 받으면 보다 빠른 성장으로 새로운 잎을 연출하게 만약 겨울에 절단을 한다면 병충해의 해를 입기 쉬우므로, 식물의 질병에 취약한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봄에 절단을 해주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처 : 우리꽃 영농조합 031-634-7990
상품가격: 6치 포트 사이즈, 최저 5,000원부터 ~ 품종에 따라 다양함.

초코렛 코스모스 *Cosmos atrosanguineus*

매혹적 색에 반하고, 향에 반하는 정원의 매력적인

가을 정원에 포인트로 관심을 모으는,
사실과 향을 갖춘 초코렛 코스모스

cosmos atrosanguineus (초콜렛 코스모스) 멕시코가 원산지이고 야생에서 멸종 상태의 종이나, 1902년 단일 무성 생식종으로 생종하여 영상 번식으로 재식물 시켜 소비자에게 소개되면서 매혹적인 색상으로 정원에서 유행하는 cosmos 중 하나이다.

초본 다년생 식물 다육질의 결절이 있는 뿌리를 가졌으며, 키는 40-60 cm를 성장하며, 깊은 녹색의 잎의 너비는 25-30cm 폭이며, 성장 속도는 느리다. 적갈색~어두운 갈색 혹은 진한 초코렛 비늘모양으로 성장하는 꽃으로 늦여름 말 정원에서 눈에 띄게 된다 그리고 초콜렛 같은 가벼운 vanillin 향기도 선사한다.

초콜렛 코스모스는 정원을 방문 한 모두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나타내며, 식물의 향미를 누구든 즐겼으며, 공감을 자아내는 가을 정원의 또 하나의 멋진 있는 식물의 친구로 모든 방문자는 관심도 깊어집니다. 초코렛 코스모스는 늦은 봄에서 성형하여 여름 더위를 사하며 추가를 지하실 실에 저장하여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Gardenin Design

Gardenin Design

- 3 cover story
- 6 Burchart Gardens 뷰차드의 여름 그 화려함으로
- 14 영국 가든 디자인코스카 있는 헤드로우 컬리지 (Hadlow College)의 가을정원
- 18 박공영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들여보기
- 22 Colour in the Garden
- 28 랜드스케이프 아바니스트가 전해주는 공원과 정원 이야기
- 34 도시와 컨테이너조경
- 38 재활용용기를 활용한 멋진 그린인테리어
- 44 플라스틱바구니를 활용한 행잉화분

Gardenin 가을정원

- 50 열매, 씨앗의 수확이 있는 지유원 탐방
- 56 가을정원에서 씨앗수집하는 즐거움
- 58 정원사의 일기
- 66 10월, 가을정원의 정리기간
- 70 가을 정원의 할일
- 72 하모니카 불며 기차길 건너던 옥수수
- 78 아티초크

Gardenin Horticulture

- 84 유기농(Organic)key hole 정원
- 88 세계사를 바꾼 식물병 감자 역병
- 90 가든인 Tip Q & A
- 92 불가사리모양으로 생긴 박주가리의 꽃
- 94 촉백나무의 천연상태 보고서
- 98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개원
- 102 청어 - 숲의 '천래놀이'를 주말, 숲에서 놀이로 만들어가다

Gardenin Information

- 106 BOOK & FESTIVAL
- 108 GARDEN & MOVIE
- 110 10월의 축제

Gardenin Horticulture

Gardenin Tip

Butchart Gardens

뷰차드의 여름 그 화려함으로



3월의 화양목 정원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10년의 변화와 배식 트랜더 읽기

캐나다 밴쿠버의 8월은 싱그러움 봄 햇살 같았다. 아니 가을의 하늘을 닮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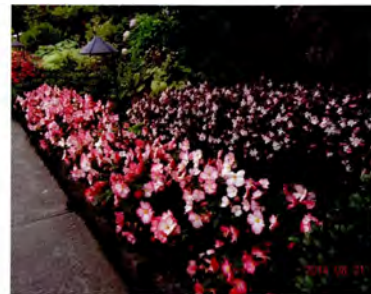
밴쿠버는 여름이 가장 좋다. 평균 기온은 26~28℃로 30℃ 이상은 거의 오르지 않는다. 만약 30℃가 넘어도 그늘에만 들면 시원하다. 또한 비가 거의 오지 않아 습도가 매우 낮아 진정한 파라다이스가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로 밴쿠버의 겨울(12월~3월)은 거의 매일 비가 온다고 보면 된다. 영국의 런던을 상상하시라. 물론 우리의 비처럼 주룩 주룩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안개비 정도라 할까? 거의 1mm 이하이다. 4월부터 맑은 날이 점차 생기기 시작하고 5~6월과 9월에서 11월은 일주일당 2~3일은 비가 내린다.



글/사진 박공영 이학박사

그러나 태풍이란 것이 없고 강하게 내리는 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후와 같은 상상은 필요 없다. 우리의 날씨와 비교하자면 초가을에서 초겨울날씨가 4계절 반복되면서 겨울에는 비, 여름엔 시원한 햇살로 상상하시면 될 듯하다. 그래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 항상 1, 2위를 다투는 도시다.

밴쿠버는 그래서 여름에 관광객이 주를 이룬다. 물론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뷰차드가든은 두말 할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올해 3월에 방문(가든인 5월호 P.98~101 참조)했을 때와 8월의 정원은 어떻게 다른지 나름 관심이 매우 많았다.

8월의 뷰차드는 정말 꽃의 대 현연이었다.

이번 기회에 약 10년에 걸쳐 방문한 뷰차드의 정원의 변화와 정원의 식재방법(배식)에 대해서 검토하면 많은 시사점과 배울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절별 이야기를 더하여 이번 여행을 정리 해 보고자 한다.

이미 로키를 여행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첫배를 타기 위한 새벽 이동을 시작 하였다. 전날 늦은 비행과 숙소투숙으로 잠을 거의 설치다 싶게 5시에 기상, 6시에 출발하였다. 가족이 많은 관계로 렌트한 미니밴은 속도가 늦은 것은 물론 주차, 승차감 등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 가족이 6명으로 5인승이 가능한 승용차를 탈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요일 8시 배는 여전히 만원이었다. 길게 줄 선 차량들 사이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성이는 많은 동양인을 보면서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를 두고 가이드를 맡은





2004년 6월의 행잉 바스켓



2014년 3월의 행잉 바스켓



1923년 The Sunken Garden (looking west), Butchart's Gardens,

아들과 약간의 머리싸움을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승선 호르라기 신호와 방송으로 길게 늘어섰던 많은 차들이 개미 행렬처럼 배안으로 뿔려들어 갔다.

그리고 한 시간의 항해 후 선착장에 내린 우리는 곧장 뷰차드를 향했다. 이른 시간에 기면 정원의 요모조모를 촬영할 때 방문객들의 방해와 받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이었다.

정문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많은 인파는 없었다. 주차장의 정원을 몇 톱 찍고 들어가는데 마침 주차장 한편의 높은 생울타리(약15m는 되어 보임) 전정을 하고 있어 운 좋게 구경을 할 수 있었다. 기계톱으로 정장을 할 것 같았는데 두 손 전정가



2004년 6월 Sunken Garden, Butchart Gardens, Canada



2014년 3월 Sunken Garden, Butchart Gardens, Canada

위로 일일이 자르는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루어 짐작 하건데 기계톱을 이용하지 않고 일일이 전정가위로 커팅 한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무의 상태나 밀도 등을 보아가며 장인의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14년 8월 Sunken Garden, Butchart Gardens, Canada



10년전 사과나무 아래와 속근초 정원의 배식



사과나무 아래와 속근초 정원



2014년 3월 방문자 센터와 화분들. 이른 봄 구근으로 자리하여 볼륨감이 적다.



2014년 방문자 센터 앞 화분배식

특히 화분은 대형화 되고 화려해 지면서 작은 광장을 여러 역으로 나누어 놓는 파티션의 역할도 담당하고 더욱 아름다움을 만족하게 만들어 준다.

입구에는 역시 이름 꽃인 임파첸스와 칸나의 포인트를 이용해 밝으면서도 방향을 잘 표시 하고 있었다. 우리의 장승 격으로 떡 버티고 있는 꼬리수국의 하얀 자태가 싱그러웠다.

방문자 센터

입구에 들어서 맞이하는 방문자 센터 앞 작은 광장의 대형 화분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데 3월의 그것과는 많은 꽃의 종류와 볼륨이 화려함을 더했다. 봄에는 주로 구근으로 장식된 화분을 볼 수 있었다. 물론 10년 전과는 매우 많은 발전된 배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 배식이 조금은 촌스러움을 느낀다.



2004년 6월의 정원에 비해 10년 후인 2014년 정원은 매우 많은 변화, 발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 다알리아원 꽃이 작은 코스모스형에서 어른 머리 크기의 대형 품종도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



10m가 넘는 생울타리를 임순기위로 전정을 한다.

우리의 가로 화단이나 공공의 정원에서 많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격적인 정원투어

방문자 센터를 지나 본격적인 정원투어에 돌입하는 진입부터 입이 딱 벌어진다. 배식이 너무 환상적인 테크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좌우측을 1년 초인 샬비어와 백묘국 그리고 제라니움의 혼성과 베고니아와 유포르비아 '다이아몬드프로스트'와 베고니아의 궁합은 가히 환상이다.

특이한 점은 8월의 테마는 베고니아였다. 온통 나무 아래는 물론 진입로 혹은 정원의 혼성식재는 물론 단일 식재로도 거의 대부분을 베고니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베고니아는 일년초뿐만 아니라 구근 베고니아도 있어 매우 다양한 품종이 출시되고 있는데 8월의 부차드는 베고니아의 향연처럼 보였다. 이런 환상적인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낸 것이 우리가 개발 해외에 로열티를 받고 있는 코레우리였다. 우리의 다양한 화색과 연중 개화하는 특성을 지닌 코레우리를 재공하여 만들어질 코레우리의 향연을 상상하면서 약간의 흥분을 맛보았다.

이전에는 동선을 거꾸로 돌아보기로 했다. 매번 추천 동선을 따라 도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가면 또 어떤 느낌일지를 궁금했다.

부차드에서 그레도 숙근초로 이루어진 화단이 사과나무 아래에 베고니아 등 계절 꽃을 심는 잔디광장의 가장자리를 이루는 정원인데 10년 전보다는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 잔디밭이 공원장이란 사실은 예전에는 몰랐었다. 역시 반대로 관람동선을 잡은 덕분이다.

여름 정원의 대표 주자격인 다알리아

역시 여름 정원의 대표 주자격인 다알리아의 키 재기장끼자랑이 잔디밭 뒤로 펼쳐지고 있어 관람객의 시간을 더 붙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음악분수를 배경으로 많은 사진들을 찍고 있었다.

드디어 Sunken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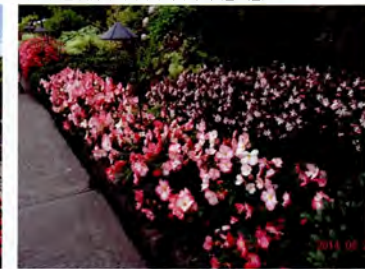
드디어 Sunken Garden 썰큰 가든을 뒤에서 올랐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보아 오던 썰큰 가든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카메라의 화각과 사람이 볼 수 있는 장면을 쉽게 내주지 않았다.



유포르비아와 혼성된 베고니아, 배식의 패턴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방향성이 잘 표현된 입구



베고니아를 곳곳에 식재하여 하나의 테마를 이룬.





반대편에서 본 썬큰, 역시 포인트 전망대는 따로 있다.

최근 배식은 대부분 혼성식재에 의한 혼합식재가 선호된다.

다시 내려 썬큰 가든의 전망대로 향하는 길에 썬큰 가든 내부의 배식 형태도 보살필 수 있었다. 썬큰 가든의 배식형태는 원색의 많은 식물을 단독으로 심어 그림이 특 떨어지게 배식하는 한편 동선의 주변은 하나의 품종으로 라인을 잡고 안으로는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한 혼성식재를 연출하고 있었다.

썬큰 가든의 전망대

썬큰 가든의 전망대에 오르면서 생각 했다. 왜 매년 수백만의 인파가 이 딱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오는가 말이다. 물론 다양한 정원테마가 있지만 단연 썬큰 가든이 뷰카드를 대표한다. 이 썬큰 가든 자리는 석회석을 채굴하던 폐광산자리에 흙을 쌓고 정원을 가꾼 전형적인 인공가든이다. 그러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썬큰 가든을 지나 평상시엔 잘 보지 못하던 이 지역에 자생한 삼나무의 험찬 기상과 역사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제 곧바로 철지난 장미 정원을 둘러 보고 일본 정원으로 향하는 길에 곧바로 지름길을

따라 출구를 향했다. 3월에 찍은 장소에서 그대로 한 번 더 찍어 비교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알리아와 사루비아에 가린 둥근형의 화양목은 겨우 흔적만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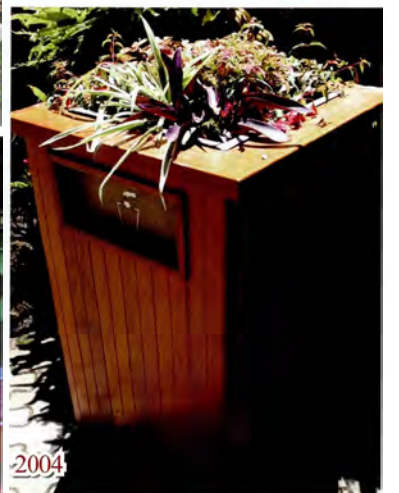
별모양의 연못 정원을 감싸고 있는 붉은 베고니아를 손을 들어 겨우 한 것 잡았다. 이태리식의 연못정원을 지나 후크시아의 아름다운 모양과 장미 정원 쪽을 바라보는 경관 등도 새롭게 다가온 정원 테마 이었다. 이제 온전히 건물 출구로 나와 뱃되지 코를 비비고는 마지막 정원을 빠져나왔다.

사실 두 시간의 짧은 시간의 뷰카드 여행이었지만 지난 4번의 여행보다는 이번의 정원에 감탄 했다. 아니 새로운 패턴을 읽을 수 있었고 뷰카드의 많은 정원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전의 정원에 비해 속근초가 일년초 화 되어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시즌에만 잠시 이용하고 다른 시즌이 오면 캐내고 새로운 종류를 심는 다는 것을 알았다. 또, 1년생 혹은 2년생 식물과 다년생 식물의 혼합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전시성 행사의 경우는 이제 다년생이 일년생처럼 이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혼식의 개념이 이전에는 군락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최근엔 개체별 혼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이 할 만하고 특히 장기 개화형 식물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하양과 연분홍 혹은 녹색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다.



진디밭 공원장 무대주변도 융복합 식재



10년 전 6월의 쓰레기통, 최근의 배식은 다른 미흡함이 보인다.



2014년 3월 쓰레기통



손관화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해정식계열
(플로리스트리 전공+가드닝 전공) <http://schm.yonam.ac.kr>



영국 가든 디자인코스가 있는 헤드로우 컬리지 (Hadlow College)의 가을정원

2010년 10월 중순에 영국의 톤브리지 (Tonbridge)에 있는 헤드로우 컬리지 (<http://www.hadlow.ac.uk>)를 방문한 적이 있다. 헤드로우 컬리지는 톤브리지 외에도 런던 동쪽에 있는 모팅햄과 캔터베리에 캠퍼스가 있는데 톤브리지가 런던에서 가장 가깝다. 런던 사링 크로스 (Charing Cross)역에서 남서쪽으로 50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톤브리지지역에

도착하고, 역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헤드로우 컬리지가 나온다. 헤드로우 컬리지는 가든디자인, 원예, 조경, 플로리스트리 등의 코스가 있어 우리 대학과 교육과정이 비슷한 영국의 2년제 대학들 중 하나이고 우리 대학 졸업생 중 한명이 영국으로 어학연수갔다 가든디자인 공부를 하겠다고 입학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대학이다. 다른 영국의 컬

리지처럼 2년을 배운 후 더 공부하고 싶을 경우 진학할 수 있도록 그리니치 대학 (University of Greenwich)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영국은 우리와 교육시스템이 달라 2년제 대학이 있고 4년제가 아니라 3년제 대학이 있는데 2년제와 3년제 대학이 연계교육을 맺고 있어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그대로 3년제 대학으로 편입된다.



영국의 등록금은 공립대학이라도 외국 학생은 1년에 10,350파운드이다. 영국 재정이 나빠지면서 공립대학 등록금이 3배나 올랐는데 2010년에 런던에 있을 때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느라 전철이 데모 장소 주변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을 보았고 학생들이 찰스왕세자 승용차에 계란을 퍼부은 뉴스를 TV에서 본 적이 있다.



영국 대학은 사람들이 직접 대학을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오픈데이(Open day) 행사를 자주 하는데 날씨에 맞추지 못해 승마대회가 있다는 일요일에 대학을 방문하게 되었다. 일요일이라 리셉션데스크에 아무도 없어 경비를 찾아 대학 정원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학생들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동안 둘러 본 영국 대학들은 대체로 교문이 없고 개방되어 있지만 방문자는 리셉션 데스크에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캠퍼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나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



헤드로우컬리지 안의 동보이는 정원

캠퍼스와 연결되어 있는 10에이커의 넓은 공간인 브로드뷰 가든(Broadview gardens, <http://www.broadviewgardens.co.uk>)에는 전형적인 영국 정원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매년 학생들의 심습을 위해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10월이라 낙엽이지기 시작했고 꽃들도 활기를 잃었지만 여전히 파란 서양잔디와 시비리가 말채나무의 붉은 줄기는 두드러져 보였다.

가든디자인 코스가 있는 런던 근교의 몇몇 2년제 대학들이 있다. 런던 북쪽에 있는 케이펠 메이너 컬리지(Capel Manor College)에도 학생들의 심습 정원이 있는데 작고 아기자기한 여러 개의 스몰가든을 만들어 디자인보드와 함께 전시를 하고 일반인에게는 입장료를 받는다. 그런데 헤드로우 컬리지의 정원은 심습정원으로서의 규모가 크고 입장료도 받지 않으며 정원 앞에는 큰 가든센터가 있었다

요즘 한국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런던 근교의 리틀 컬리지(Writtle College)에도 정원이 있는데 가든센터는 영업을 안되는지 비어 있었고, 케이펠 메이너 컬리지의 가든센터는 너무 작았던 것에 비해 헤드로우 컬리지의 가든센터는 일반 가든센터 정도의 규모로 정원용품과 실내식물 전시를 위한 온실과 넓은 실외 매장이 있었다. 정원만 보고 학교를



선택하라고 하면 헤드로우 컬리지를 선택할 것 같다. 그만큼 정원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정원 관련 코스가 비중한 코스라는 것이다.

런던 서남쪽의 길포드 컬리지(Guilford College)는 다른 대학과 달리 심습정원이 없었다. 오픈테이에 당번으로 나와 있던 조경과의 교수에게 들었는데 그 대학은 돈이 많이 들어 정원을 만들지 못한다고 했다.

봄에 헤드로우 컬리지의 정원을 방문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식물을 재배하는 농원(nursery)은 학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온실이 많았다.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회장(이학박사님)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훑어보기는 가든인 독자들에게 식물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그냥 이름 없는 꽃이 아니다. 식물에 속한 '속'이 있고 '학명'이 있고 '한국명'이 있다. 그리고 보면 한두 가지 이름이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은 그 이름을 만글이나 꽃색, 향기, 아름다움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정원의 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빌려 식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아스트란티아는 절화용으로도 잘 이용되고 건조화로 이용도 한다. 열매가 맺혀 떨어질때까지 아름답다

며, 이들은 종자가 성숙하기 전에 꽃을 잘라주지 않으면 스스로 종자를 뿌려 알아된다. 무늬종은 최적의 잎색을 얻기 위해 충분한 햇빛을 필요로 한다. 증식은 종자가 익자마자 파종을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약간 덜 익은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더욱 발아가 잘 된다. 또 다른 증식 방법으로는 봄에 분주를 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민달팽이, 진딧물 그리고 흰가루에 의한 피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철 이후에 좀 약한 편이라 습윤지이면서도 물 빠짐이 좋은 장소에 심으면 좋다.



작은 꽃무리가 보석같이 빛난다.

Astrantia major pink Masterwort

아스트란티아 속 (*Geums Astrantia*)

아스트란티아 속 식물은 최근에 국내에 소개된 식물로 무리를 형성하는 다년생의 10종 정도가 속하는 속으로 유럽부터 서 아시아의 고산삼림지와 초지에서 발견된다. 이들의 잎은 흡사 이질풀 혹은 손바닥 모양의 로제트를 이루고 6월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직립하고 작은 산형(우산모양)꽃차례, 5개의 꽃판으로 된 꽃은 얇은 포엽의 주름진 같은 총포에 둘러싸여서 아름답게 보여진다. 꽃은 작은 가지 끝에 핀다. 투성화를 말려서 꽃꽂이에 이용해도 유용하다.

내한성이 뛰어나며 재배는 축축하고 피옥하여 부식토가 많은 토양을 선호한다. 태양이 직접 비치는 양지를 좋아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늘진 환엽수 아래에서 기른다. A.major의 대부분의 재배종은 아주 건조한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Astrantia major

아스포델 속 (Genus Asphodeline)

난이나 혹은 용설란처럼 직립하는 줄기에 가는 잎을 가진 식물로 이년생 혹은 다년생이다. 최대 20여 종의 속으로 지중해와 티키, 카프카스 산맥의 돌이 있는 초지, 그리고 덤불을 형성하는 건조한 산비탈에서 자라며 포기를 형성하고 다육성 혹은 섬유성 지하경을 갖는다. 로제트 형의 포기에서 직립하는 꽃대를 세우고 별모양의 흰색 혹은 노란색 꽃이 줄기에 다다다닥 붙어 피어나는 총상꽃차례를 이룬다. 가지를 치지 않는 줄기는 처음에는 강하지만 점차 하늘거리는 모습으로 이국적이다. 화단이나 건조하고 햇빛이 잘 드는 도로가 등에 좋다.

내한성은 뛰어나지만 구근 형태의 굵은 뿌리는 우리의 장마철에 약한 단점을 보인다.

재배는 적절히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고 깊은 토양에 밝은 양지에서 기른다. 그러나 경기 북부의 경우 가을에 낙엽 등으로 뿌리둘레를 덮어 보온을 해주는 것이 안전하다.

증식은 봄에 파종을 한다. 늦은 여름과 이른 가을에 분주를 하고 다육성 지하경을 2~3개로 쪼개어 심어도 된다.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는 민달팽이, 달팽이, 그리고 진딧물에 의한 문제가 생긴다.



파초일엽속 (Genus Asplenium, Birds nest ferns)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류가 분포하는 속으로 대체로 음지에 서식한다. 상록성 혹은 반 상록성, 육생식물 혹은 착생성 양치식물의 700여 종의 속으로 남극을 제외한 대륙의 다양한 서식지에서 발견된다.

몇 종의 *Asplenium*은 '새의 둥지'모양을 하는 양치식물로 포자낭군은 선형이며 일반적으로 각각 평행으로 중간 부위에서 가장자리로 뻗는다.

작은 종은 벽의 틈, 암석 정원, 혹은 고산성 식물의 수반에서 사용된다. 큰 종은 삼림지나 그들이 진 화단에서 관목 사이에서 기른다. 서리가 내리는 경향이 있는 기후에는 실내용 화초로 기르거나, 서늘할때는 따뜻하거나 온난한 온실에서 기른다.

내한성은 대체로 강한 종류가 있으나 파초일엽과 같은 종은 결빙에 약하다. 그러나 고사리와 비슷하게 생긴 *A. ceterach*, *A. scolopendrium*, *A. trichomanes*와 그 재배종은 -30℃까지 내한성을 지니고 있다.

재배는 주로 온실에서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모래, 숯등을 동일한 양으로 혼합한 용토를 이용하면 좋다. 햇빛은 차광된 밝은 빛과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면 잘 자란다. 성장 중일 때에는 물을 적절히 주고, 액체 비료를 달마다 공급하고 겨울에는 물을 적게 준다.



최근 파초일엽속이 실내에 이동이 늘면서 돌면이를 유망한 신종종들이 개발 소개되고 있다.

파초일엽은 주로 실내 관엽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사진은 변면복화에 이용된 사례





Camellia 'Arbutus Gum'



Camellia japonica 'Midnight Serenade'



Geum 'Mrs J Bradshaw'

빨강은 정열과 흥분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다이나믹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호등에서의 이미지는 위험이나 경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애정을 표현 할때는 빨간 장미를 선물하기도 한다.

미국의 색채학자 비렌(Faber Birren, 1954)의 연구 결과에 보면 빨간색의 환경에 놓이면

심장박동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보고가 있다.

이렇듯 빨강은 정열, 흥분, 자신감, 위험, 경고, 따뜻함, 애정 등 다양한 이미지 를 만들어 내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주변에는 빨간색을 갖고 있는 식물의 종류가 많이 있다.

화단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색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의 느낌을 살려

화사하면서도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레드정원(Red Garden)을 만들어 보자.



Rhododendron barbatum



Tulipa praestans 'Unicum'



Erysimum cheiri 'Blood Red'



Dahlia 'The Bishop of Llandaff'



Tulipa praestans 'Unicum'



Papaver bracteatum



Fuchsia 'Mrs Popple'



Salvia blepharophylla 'Diablo'



Cyclamen persicum Miracle Series



RED

오도
플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일본 惠泉女學園(惠泉女子大学)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빨강은 흐트러짐을 모아 준

빨강은 화단에도 많이 심지만, 화분 식재에도 포인트로 심으면 효과적이다. 화분에 노랑, 핑크, 파랑, 주황 등의 다양한 꽃을 모아 심다 보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는데, 포인트로 빨간 색의 꽃을 소량 섞어주면 전체가 정리 되는 느낌을 받는다.



빨강은 흐트러짐을 모아준다(Hardwick Hall)



빨강은 흐트러짐을 모아준다(St Andrew B Garden)



빨강은 흐트러짐을 모아준다(Benningbroock Hall n Gardens)



빨강은 식욕을 돋구는 색이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가면 왠지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유심히 둘러보면 테이블에서 의자 또는 요리 접기에 이르기까지 빨강의 색감이 눈에 들어 온다. 빨강은 고급스러움을 주는 동시에 식욕을 돋구는 색이기 때문이다.

빨간 토마토, 빨간 딸기, 빨간 피망이 식탁에 올라오면 살고 싶고 즐거움을 떠나 식욕이 돋고, 원기가 회복되는 느낌이 든다. 유럽의 정원을 거닐다 보면 채소정원에서 볼 수 있는 빨간 토마토와 벽면을 타고 올라가게 유인을 해서 키운 체리가 한눈에 들어 온다. 고급스러운 벽을 타고 오르며, 주렁주렁 매달린 체리는 식욕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우아하기까지 하다.

빨강은 식욕을 돋구는 색이다(Rousham House)



빨강은 식욕을 돋구는 색이다(Rousham House)



Hampton Court



RHS Rosemoor

빨강은 강한 인상을 준다 (Hampton Court)



빨강은 강한 인상을 준다

빨강하면 떠오르는 빨간 신호등. 신호등만큼 강한 인상을 주는 예는 드물 것이다. 그만큼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눈에도 잘 띄고, 멀리서도 눈에 잘 들어온다. 빨강의 강한 인상을 더욱 잘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색과 섞어서 심기 보다는, 초록색을 바탕으로 한 단일의 색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사진에서처럼 화양목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빨간 베고니아로 전체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그와 비슷한 색인 핑크색의 베고니아로 포인트를 준다. 베고니아는 잎 보다는 꽃이 무성하게 피기 때문에 정원 전체를 꽉 메우기에 적당하며,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1. 빨강과 노랑의 어울림

빨강+노랑 (Front of Palm House Kew G)

노란 에리시먼(Erisimum)과 빨간 튤립의 만남은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전체적으로는 노랑 바탕에 흰색을 약간 섞어서 노랑과 빨강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희망을 주는 노랑과 정열적이면서도 사랑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는 빨강의 연출은 화사한 봄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1. 빨강+노랑(Front of Palm House Kew G)
2. Cornus alba 'Sibirica' (Hillier Gardens)
3. Cornus sanguinea 'Midwinter Fire' (Savill G)
4. Chrysanthemum 'Bullfinch'
5. 빨강+연한핑크(Chelsea FS)
6. 빨강+진한핑크(Front of Palm House Kew G)

2. 빨강과 핑크의 어울림

빨강+연한핑크(Chelsea FS)

빨강+진한핑크(Front of Palm House Kew G)

빨강은 연한 핑크색과 만나면 부드러운 분위기가 나고, 진한 핑크와 만나면 시크(세련되고 멋있는)한 인상을 줌과 동시에 우아한 배색이 된다. 연한 핑크색의 차이브 사이에 피어난 튤립은 마치 요정의 집처럼 귀엽기만 하다. 진한 핑크와 진한 빨강의 프리몰러는 색상환에서 보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색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꽃의 가운데에 들어간 노란색이 두 색을 연결시켜주면서 더욱 잘 어울린다. 빨강과 핑크와 노랑은 모두 이웃하는 색으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



7. Rosa 'The Times Rose' (Korpeahn)(WG)
8. Paeonia peregrina (Paeoniaceae)(WG)
9. Geranium x ardens (Sissinghurst)
10. 빨강+다크브라운(Hampton Court FS)
11. 빨강+녹색(Garden View Savill G)
12. 빨강+파스텔칼라(East Walled Garden)

3. 빨강과 다크브라운

빨강+다크브라운(Hampton Court FS)

빨간 다알리아 뒤로 다크브라운의 칸나 잎이 훌륭한 배경색이 되어 주고 있다. 다크브라운은 트로피컬한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적합한 색으로, 여름의 화단을 더욱 강렬하게 표현할 때 쓰이기도 한다. 다크브라운의 칸나 잎과 만나 다알리아는 채도가 낮은 칼라를 선택해 햇빛을 받으면 투명한 빛을 바란다.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칼라들이지만 채도의 깊이에 따라 밝고 따뜻한 표현이 가능하다.



4. 빨강과 녹색의 어울림

빨강+녹색(Garden View Savill G)

빨강과 녹색은 색상환에서 정반대의 위치하는 보색의 관계다. 넓은 잔디밭과 푸르른 숲을 배경으로 다양한 색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단연 돋보이는 색은 빨간색이다.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빨강의 양은 아주 적은 편이지만, 만병초의 밝고 선명한 빨강이 전체를 잘 어우르며 조화를 이룬다. 빨강의 독특한 매력을 채도나 명도의 차이에 따라 폭넓게 이용해 보자.



5. 빨강과 파스텔칼라의 어울림

빨강+파스텔칼라(East Walled Garden)

빨강을 메인으로 만들어진 튤립정원이다. 빨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빨강과 비슷한 계열의 오렌지와 보라색 등을 섞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 올린다. 하지만 면적이 너무 넓어지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흰색과 노랑, 파랑 등의 파스텔칼라를 혼합해서 부드러움을 자아내면 효과적이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스트가 전해주는 공원과 정원 이야기



글/사진 김 홍 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연구소(주)
 건축/조경/생태복원가사, 우리공필길라잡이
<http://blog.naver.com/hongdoily>

선유도공원

Landscape Urbanist?

여러분 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는 영어로 LANDSCAPE URBANIST로 사람들이 모여사는 도시 공간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즉, 건축, 조경, 토목, 원예, 심리학 등과 같은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경관(LANDSCAPE)을 디자인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가치 증진을 으뜸으로 여기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스트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왜 도시에 집중하는가?

도시에는 도대체 어떤 매력에 있길래 수 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여행객과 같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도시에 살아가는 이유는 농촌에서 농업 생산물을 얻어서 가지는 소득보다 도시에서의 노동 가치와 제품 생산 및 서비스를 통해 얻는 부가가치가 훨씬 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행객들과 방문객들에게는 자랑스럽고 찬란한 역사 문화가 많은 곳, 다양한 선진 문화를 경험하는 즐거움,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얻는 생활의 환기(喚起)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의 보금자리가 되어 왔다.

녹색의 생명력이 필요하게 된 도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도시들의 성장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후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유럽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공장과 집단 주거지가 생겨났으나 도시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과잉 인구의 유입,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도시 오염물질 증가, 부분별한 개발로 인한 삭막한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얻어 죽거나 전염병을 앓기도 했다. 그리고 농촌을 떠나 메마른 도시에 살아온 이민자들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까지 얻어 도시는 한마디로 무력하기 그지 없었다. 도시 환경 개선 및 건강성 증진, 자연에 대한 동경을 해소해줘야 할 시대에 태어나게 된 분야가 바로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이다.



1. 인도 찬디가르 2. 일본 티마뉴타운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이후부터는 전 세계에 수많은 도시들은 지역지구제를 바탕으로 바둑판 같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 곳곳에 하늘로 곧게 뻗은 마천루(skyscraper), 대형 쇼핑시설이 즐비하고 자동차 운행이 원활하게 만드는 것에 혈안이였다. 하지만 그 당시 거대한 인프라 스트럭처와 건축물, 아스팔트 포장으로 뒤덮인 곳들 사이 사이에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숨통을 틔우고, 건축물의 배경으로써 녹색경관을 배치하게 된 것이다.



3. 선유도공원 4. 서울숲 꽃시음 5. 보라매공원
6. 북서울 꿈의 숲



도시에서의 공원

현대 도시에서 공원은 단순히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녹색의 푸르름으로 치장하는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 공간 속에 조성된 공원들은 도시민들의 문화와 삶을 담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도시의 브랜드가 된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다섯 곳의 공원을 사례로 보자. 시민참여로 조성된 숲과 살아 숨 쉬는 야생화와 꽃시음이 머물고 있는 서울숲, 다양하고 멋진 건축 프로그램과 녹지가 융합된 북서울 꿈의숲, 과거 산업시대 정수장으로 활용되었던 흔적을 담아 한강변에 공원 문화를 꽃 피운 선유도공원, 공군사관학교가 빠져나간 자리에 도시 여가의 공간이 된 보라매공원, 쓰레기더미로 뒤덮여 있던 곳에 푸른 꽃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복원된 월드컵공원이 바로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이자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녹색의 장이 되고 있다.



도시에서의 공원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인 로버트 헤리슨(Robert Pogue Harrison)은 자신의 에세이 '정원, 인간의 입장에서 본 에세이 (Gardens: An Essay on the Human Condition)'에서 인류가 정원을 만드는 이유는 함부로 다룰 수 없었던 금지의 장소인 에덴동산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 정원의 어원을 보면 영어는 garden, 프랑스어는 jardin, 독일어는 garten으로 모두 담장으로 둘러싸인 폐쇄된 공간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동북 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쓰는 정원이라는 단어에 '원(園)'이라는 문자를 풀어보면 그 의미에도 '담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어원 정리를 해보면, 정원이란

인간 개개인이 꿈꾸는 이상향으로서 자연 생명력이 숨 쉬는 닫힌 공간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다시 정원이 대중에게 주목 받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공원으로 대표되는 도시 외부 공간 활용에서 시민들 개인 스스로 주체적인 활동과 생산적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지각과 함께 여가 문화 활동에 기반한 먹거리 생산으로서 도시 농업(Urban Farming)과 도시 정원 가꾸기(Urban Gardening)가 뒷받침되면서 정원문화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7.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8. 서울시 전경 9. 송파구 숲이팅빌 안내판 10. 송파구 숲이팅빌 도시농업 환경교육관 11. 송파구 숲이팅빌



맺음말

도시의 멋진 공원과 가로, 정원, 워터프론트(Waterfront)를 가진 곳이 살기 좋은 도시,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도시라는 인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는 환경의 시대, 녹색문화의 시대, 정원의 시대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거대한 인프라 스트럭처와 건축물, 인공 포장 등으로 뒤덮인 삭막한 도시 경관 속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민들의 숨통이라도 틔게 해주었다. 그리고 과거의 녹지조성 노력이 녹색 공간의 양적인 확충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규모가 작더라도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언제든지 녹색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 공원과 정원 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원과 정원을 함께 가꾸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로 인해 도시민들이 정원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시와 컨테이너조경



윤 평 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갈색계열의 벽면에 갈색계열과 녹색을 만듦과 완결에 대한으로 원형의 갈색계열에다
형가로우를 식재하여 장식한 컨테이너조경

컨테이너조경의 역사를 보면 고대 이집트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를 통해 로마를 거쳐 전 유럽에 보급되었으며 후에 영국에서 이민을 간 청교도들에 의해 미국을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 등지에서 유행되고 있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남아메리카의 정벌로 이들의 유럽문화가 전파되어 남미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컨테이너조경의 발달은 도시화해 도로와 인도포장으로 나무를 심을 곳이 없어지자 공여지책으로 컨테이너를 만들어 식물을 식재하여 삭막한 도시 경관을 녹화하므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장소가 인간이 거주하는 건축물주변에 장식물로 식재되었고 성곽이라든지 도로변에 가로수대신에 식재되었다. 유럽인들은 식물을 식재하는데 컨테이너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 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같다. 또 그렇게 큰 컨테이너를 어떤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 것일가 하는 것도 고민거리였던 것 같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어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나무가 영구성이 없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하는 폐단이 있어 다루기 쉬운 동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도자기제품이나 석제품, 철제품, 플라스틱제품, FRP제품 등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다.

흰색의 동근화분에 2층으로 조성된 다정다수모양의 동굴계 모형을 식재하여 건물코너를 장식한 컨테이너 조경 ▶



▲갈색벽면과 녹색정문안에 갈색의 여러가지 컨테이너에 향나무나 여러가지 초화류를 식재하여 장식한 컨테이너 조경



▲갈색의 목재컨테이너에 흰색의 코페루스, 무늬잡힌, 비코피등을 식재한 호텔 건물앞을 장식한 컨테이너조경

컨테이너조경이 이용되고 있는 공간은 건축물의 벽면 앞이나 현관 양옆, 옥상정원, 광장, 도로주변, 도로 중앙분리대 등에서 이용된다. 이용되는 식물도 가지각색이다. 온대기후지역에서는 상록침엽수나 상록활엽수를 식재하여 관상하며 열대 건조기후대나 사막기후에서는 다육식물들을 식재하여 관상하기도 한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일년초를 식재하여 관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국적인 풍취를 누리기 위해 다른 기후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여 관상하기도 한다.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서는 열대 관엽식물이나 관화식물들이 이용되었다.



▲도로중앙분리대에 토레니아를 식재한 컨테이너조경



▲녹색정문안에 갈색목재컨테이너에 소라티스를 식재한 컨테이너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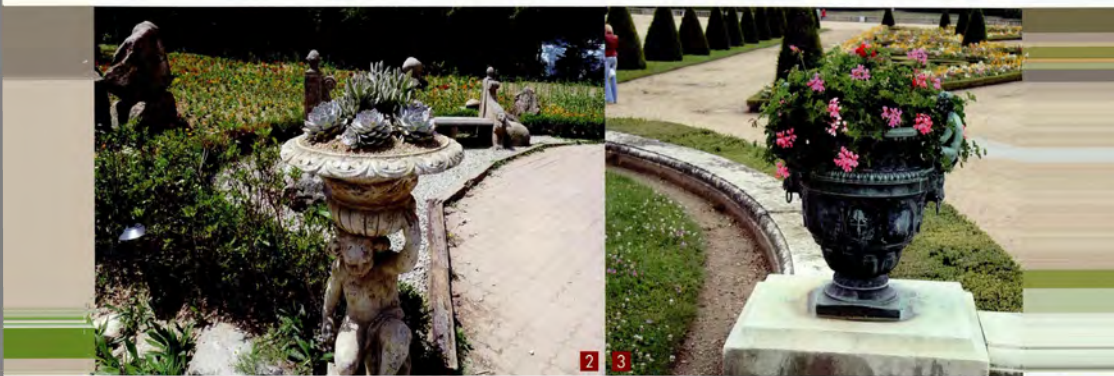
예를 들면 바나나(*Musa acuminata*)를 비롯하여 큰극락조화(*Strelitzia nicolai*), 벤자민고무나무(*Ficus benjamina*), 나한송(*Podocarpus macrophyllus*), 월계수(*Laurus nobilis*), 대엽채프렐라(*Schefflera actinophylla*), 붉은잎 드라세나(*Dracaena rubra*), 코르딜리네 인디비사(*Cordyline indivisa*), 서양회양목(*Buxus sempervirens*), 이탈리아싸이프레스(*Cupressus sempervirens*), 향나무류(*Juniperus spp.*), 귤나무류(*Citrus spp.*), 상록관목으로 라벤더(*Lavandula spp.*), 로즈마리(*Rosmarinus officinalis*), 익소라류(*Ixora spp.*)가 식재되었고 이외에도 주목(*Taxus cuspidata*)이나 후쿠시아류(*Fuchsia cv.*), 란타나(*Lantana cv.*), 소철(*Cycas revoluta*), 야자과 식물(*Palm*) 등과 1,2년초로 제라니움(*Pelargonium hortum cv.*), 메리골드(*Tagetes spp.*), 가우라(*Gaura lindheimeri*), 백일홍(*Zinnia elegans*), 팬지(*Viola spp.*), 이터그레이지(*Salvia greggii*), 백국꽃(*Senecio cineraria*), 켄거루 포우(*Anigozanthus spp.*), 페튜니아(*Petunia cv.*), 수선화(*Narcissus cv.*), 튜립(*Tulipa cv.*), 팬지(*Viola cv.*) 등이 식재된다.



녹색과 갈색, 아이보리갈색의 옥상 건물앞에 갈색의 토분컨테이너에 향나무류를 식재하여 장식한 컨테이너조경 ▲



1



2 3

이때에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디자인이 요구되는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색채와 형태, 선, 질감이 유사한 것으로 이용됨이 바람직하다. 컨테이너 크기와 식물의 크기 비율은 컨테이너:식물을 5:8의 비율로 식재함이 보기에 좋다. 실외의 컨테이너는 용기안의 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실내식물일 때는 배수구가 막혀 있어야 물이 새지를 않아 실내가 깨끗하게 유지된다. 이때에는 관수는 물을 정도껏 주어야 하는데 약간의 경험치 요구된다. 배수구가 있을 경우에는 물을 줄 때 충분히 계 주며 배수구가 없을 때는 화분의 배양토 표면을 손가락으로 감지하여 바싹 마른듯하면 용기 크기에 비해 1/7정도 양을 주면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잎을 만져보는 방법인데 잎이 뻣뻣하고 광택이 나면 물기가 있는것이고 시들시들하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측하여 물을 용기양에 1/7정도 주면 된다. 이외에도 관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방법이 가장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방법이다.



4

1. 옥상에 정육면체의 흰색 컨테이너에 장식한 이탈리아파이프레스
2. 화단공간을 장식한 컨테이너 연나무에 다육식물을 식재한 컨테이너 조경
3. 베르사이유정원에 청동으로 만든 컨테이너에 제라늄을 식재한 컨테이너조경
4.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컨테이너에 각종 초화류를 식재하여 분리대를 조성한 컨테이너 조경
5. 옥상개단을 컨테이너에 각종식물을 식재하여 녹화된 프랑스의 라데팡스 컨테이너조경
6. 간판을 통풍시키기 위해 장식한 고장식컨테이너에 메리골드와 제라늄, 실버더스트 등을 식재한 간판조경
7. 갈색의 현관에 조화되도록 갈색의 컨테이너에 나선형나무와 제라늄을 식재한 컨테이너조경
8. 콘크리트 바닥위에 원형의 대형 컨테이너에 클라리나를 식재하고 리본모양 잉글리쉬 아이비를 장식한 컨테이너조경
9. 상하 간판을 통풍시키기 위해 흰색의 직육면체의 사각컨테이너에 셰프레라 아르보리클라와 맥문자재비를 식재하여 장식한 컨테이너의 관엽식물
10. 철제컨테이너에 클라리나를 식재하고 초화류를 식재하여 장식한 쉼터공간의 컨테이너조경
11. 네덜란드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11



5



6



7



8



9



10

가을 실내정원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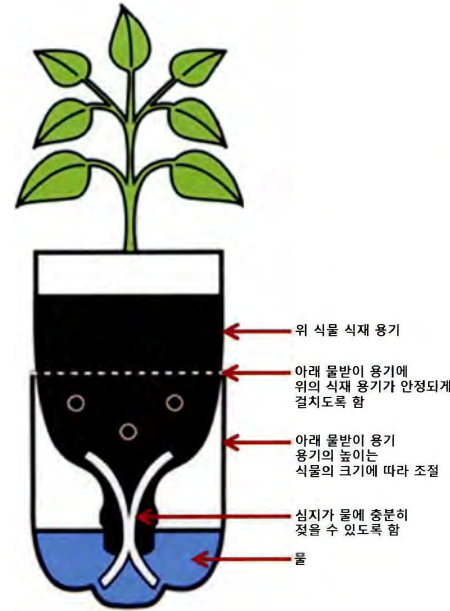
심지로 물 관리하는
실내정원 I

"재활용 용기(PET병)"를 활용한
멋진 "그린 인테리어"
들어보셨나요?



정 순 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농업연구사

기존의 일반 화분은 화분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어 물을 주면 아래로 흘러나와 별도의 물 받침대가 필요하고, 물이 흐르면 화분에 있던 흙까지 빠져나와 주위가 지지분해되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화분 흙으로 인공배양토나 자연이끼 등을 쓰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줄 때 서서히 스며들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물을 채운 통에 화분을 담아 화분 바닥부터 물을 흡수시켜 관수하는 경우 많은 화분을 동시에 관수하게 되면 물로 병균이 옮겨지는 치명적인 병의 전파도 우려된다. 이렇게 평소 실내식물을 많이 다루고 싶지만 까다로운 물 관리 탓에 식물을 키우는 데 부담이 있는 초보자라면, 더욱 간편한 물 관리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심지 관수법'을 알면 편리하다. 재활용 용기를 활용한 멋진 그린인테리어 들어보셨나요? PET병을 이용한 화분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식물의 종류는 많을 테지만, 실내 환경과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페트병 화분 관리요령을 소개한다.



1. 심지를 이용한 관수방법

심지관수 방식은 심지의 미세관 작용에 의해 배지 내로 소량의 양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저면관수 방식으로 30년 전부터 개발되어 식물체에 수분 스트레스가 적은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용기에 양액을 담아 재배하는 방식은 식물체지지, 이끼 발생, 산소 공급 등의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이용하기에는 기술과 주의가 필요하다.

2. 실내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실내 식물들

화분의 배수구멍에 시판되고 있는 부직포 심지나 흡수력이 좋은 행주와 같은 천을 끼우고 배양토를 담아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놓으면 심지를 통해서 물이 조금씩 흡수로 흡수된다. 흡의 양이 많으면 심지의 수를 늘리거나 폭을 넓게 하여 흡에 건조한 부분이 없이 촉촉하게 수분이 올라오도록 심지의 닿는 면적을 조정해야 한다.

심지의 길이는 물이 담긴 용기의 바닥까지 닿게 하고 아래 용기에 물을 채울 때는 심지를 끼운 화분을 올려놓았을 때 화분 바닥이 물에 닿지 않을 만큼 담도록 한다. 화분 밑에 물이 닿으면 양분이 빠져나가고 흙이 너무 습하게 되어 생육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양분이 없는 흙이거나 비료관리가 어렵다면 물 대신 양액을 채워주면 되는데 그러면 양수분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심지관수 방법은 물이 바닥으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한 베란다에서도 관리하기가 편리하다. 한편, 물을 담은 용기가 크면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심 맛있는 시스템이다.



아스파라거스실내 밝은 환경



상록낙엽고사리 후마타



드라세나 산테리아나



금사철나무



말손이나무



테이플아자



좁은잎크로톤



호아



틸란드시아



아글라오네마



필로덴드론 레몬라임



해피트리



가든인 TIP

식물의 크기나 들어지는 높이에 따라 아래 물받이 용기의 높이를 조정하여 안정되게 한다.

3) 펄트병 심지 화분 물 관리 요령

펄트병 화분에 심지관수를 적용하면 하루 용기에 저장된 물을 심지를 통해 식물에 공급함으로 기존의 번거로웠던 물 관리에 벗어날 수 있다. 식물을 식재 한 후 처음에는 식물이 식재된 상부 용기에 압축된 분무기를 이용하여 배지 내에 수분을 공급해 준다. 이는 배지의 수분이 증발되면서 모세관현상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① 식물 종류별 1회 공급할 물의 양 결정한다.

재활용 펄트병 아래 볼통에 정량(약 200mL)의 물을 공급한 후,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남은 물의 양을 재이 뺀 흡수한 물의 양을 계산한다.

예시) 흡수량 = 공급량(200mL) - 남은 양(100mL) = 100mL



물주는 방법 예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컵을 이용하여 펄트병에 50mL, 100mL 표시를 해준다. 식물이 생장을 많이 하는 생장기에는 100mL를 주고 식물이 생장을 거의 하지 않는 휴면기에는 50mL를 주어 각 시기에 알맞게 적용하여 식물이 잘 지랄 수 있도록 한다.



가든인 TIP

배지한 장소의 환경에 따라 물의 증발되는 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배지할 장소를 정한 후에 흡수량을 정하도록 한다.

② 물주기에 대한 관리주기를 정한다.

식물의 생태형에 따라, 물의 공급량이 많고 지속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첫 번째 물을 공급한 후, 배지가 완전히 마르는 시점을 계산한다. 물주기 또한,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짐을 인식해야 한다.

③ 식물의 종류와 배치장소에 따라 관리방법을 터득한 후 관리한다.

※ 주의사항

병뚜껑의 구멍을 통해 상부 용기 배지 내의 물이 모두 배수가 되면 하부 용기에 심지가 잠길 정도로 물을 공급해 준다. 단, 병뚜껑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주는 시점은 심지가 더 흡수할 물이 없을 때 물을 공급해주도록 한다. 아침마다 분무기로 공중 습도를 높여 주면 식물의 생육에 좋다.



가든인 TIP

장파장 공중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 증발과 증산(증발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과습해 질 수 있으므로 그 시기엔 물통에 물을 채워주지 않는 것도 관리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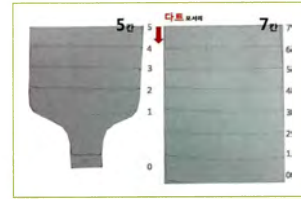
4) 펄트병을 활용한 심지 화분 만들기



펄트병, 가위, 심지, 식재도구

배지(난석세립, 배양토 등).

화분만들기 Step by Step



① 펄트병 자르는 위치 예시



④ 심지는 바닥에 'L'모양으로 닿을 정도의 길이로 두고 위로는 용기 높이의 1/3 정도 올라오게 함



② 펄트병의 입구너비만큼 식재부의 높이를 정한 후 자르기 (좁아지는 병마개 부분제외, 내장높이=11)



③ 펄트병 두께에 전정가위로 구멍을 낸 뒤 준비한 심지 통과 (물을 흡수하는 재질은 모두 OK)



⑤ 식물을 손으로 받쳐 분 흙에서 조심스럽게 빼냄



⑥ 뿌리가 상하지 않게 흙을 털고 긴 뿌리는 펄트병 크기를 고려하여 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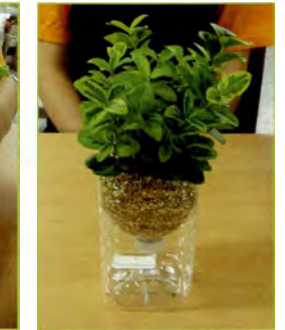
⑦ 지체부를 모아 식물의 가장 예쁜 얼굴을 만들기



⑧ 심지가 배지 사이에서 세워 지도록 심지 주변을 배지를 이용해 고정



⑨ 자연스럽게 뿌리가 놓일 수 있도록 식물을 배치



⑩ 잡고 있던 지체부에 놓은 후, 식물체의 얼굴을 만들며 배지를 채움



⑪ 병뚜껑이 잠기지 않을 만큼 물을 채워줌



⑫ 식물의 생태형에 따라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해주거나, 끊어 주는 방법을 선택함

4) PET병 화분의 또 다른 변신



4계절 변치 않는 수확의 즐거움

4Season
포 시즌 원예용품



다목적가위 적과가위 전지가위 낫 양손가위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23 | 소비자상담실 : 080-022-3211

www.dorcoliving.co.kr



우정아 DIY 재 활용 가드닝
플라스틱
바구니를
활용한
행인 화분



우정아 / 가든 코디네이터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플라스틱 바구니를 활용한 행인 화분은 습기에 약한 식물을 배수가 좋게 하여 쉽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면서 밑으로 늘어지는 모습으로 공간의 미와 활용도를 높여 준다.

Step by Step



1. 플라스틱 바구니 겉면에 원하는 색으로 도색 한다.



2. 산이끼를 깔아 흙이 새어 나오지 않게 한다.



3. 배양토를 넣어준다.



5. 식재 후 공간이 없도록 배양토를 채워준다.



4. 카멜레온을 포트에서 분리하여 식재한다.



관리법

흙이 완전히 마르면 물을 흠뻑 줘야 한다.
과습하면 잎이 떨어지고 노는 성질이 있다.
꽃이 지면 전체적으로 짧게 잘라 주면 생육이 좋아진다.



>>가드닝 재료



플라스틱바구니



카멜레온(시비름채송화)



스프레이페인트



산이끼



배양토



아크릴물감



붓

"정원 디자인"이 대세인 시대

심면 되는 정원의 시대는 지났다.

식물의 특징, 식물의 분류의 정보를 알아보고

"식재의 디자인 마술사"로 한걸음 앞서는 나만의 정원
정원문화를 주도하는 '가든조아' - "주말 특강반"



주말특강반

정원디자인의 설계 및 가을 정원관리

수업일정: 2014.11월 1일(토), 8일(토), 오전 10~ 오후 3시(중식포함)
수강료 : 15만원(교재 - "정원디자인의 설계 및 정원관리" - 칼라판 교재 포함)
등록 마감일 : 2014년 10월 10일 마감 (선착순 30여명 내외)
문의처 : 가든조아 교육담당 기획실 031-634-7990
계좌이체 : 농협 1087 - 01 - 012794 우리꽃



강사명	정원 식물의 분류 및 소개	시간	방법
김시용	꽃을 통한 식물분류학 이해하기	2	이론 및 실습
	가을철 나무심기 및 나무 선정	2	이론 및 실습
오도	실제로 조성한 정원소개 (숙근초원, 텃밭정원, 허브정원 등)	2	이론 및 실습
	정원의 구성요소인 화단설계 (colour in the Garden)	2	이론 및 실습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오도

플문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강사 도서소개



텃밭정원가이드북

저자 : 오도, 김시용
처음 海堡는 텃밭정원
여럿이 함께 만드는 텃밭정원, 도심
어린이집 벽을 따라 만드는 텃밭정
원, 걸어다니는 텃밭정원까지 텃밭정
원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사
친과 함께 그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
해 주고 있다.



씨앗받는 농사매뉴얼

저자 : 오도

이 책의 저자 오도는 농업기술고등학교인 '플문학교'의 교사
다. 플문학교에는 고등학교 과정 외에도 '전공부'라고 해서
고교 졸업생들을 위한 좀 더 심도 있는 농업 교육 과정을 운
영하고 있다. 저자와 전공부 학생들이 약 10년 전부터 시작
한 일이 있다. 바로 재종 '씨앗 받기'다. 종묘상에서 사서 심
는 것이 당연해진 씨앗, 하지만 어릴 때만 해도 수확 후에는
씨앗을 갈무리해 다음 해에 뿌리고는 했었다. 그 기억을 되
찾으며 '지금도 씨앗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고, 직접 씨앗을 받고 그것을 뿌려 커두기에 도
전했다.

Programs & Events



교육프로그램 이벤트 주말/특강반

우리꽃
교육안내
EDUCATION

건강한 정원디자인

내 집의 마당, 아파트에서의 정원, 집
뒤편 야산의 정리 실재 정원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알려드립니다.
식물의 생육을 고려하여 건강한 디자인
을 정원에 펼쳐봅니다.

구근의 생리, 식재, 관리

추식구근의 종류, 심기, 관리, 식재
응용법을 총 통합한 지식 배우기



우리 자생식물과 예술 (정원식물과 사진)

가을은 꽃과 나무, 풍경 사진 찍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입니다. 날씨와 빛에 따라 달라지는 식물들에게 내 감성
을 담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프로그램명	일자	시간	비고
건강한 정원디자인	11월 주말(토)	10:00~15:00	2
구근의 모든것	11월 평일	10:00~15:00	1회
우리 자생식물과 예술	9~11월	10:00~13:00	1~2회 예정

* 각 프로그램당 인원은 20~25명 내외로 선착순 진행됩니다.
* 프로그램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와 예약은 blog.naver.com/gardenjoa777
또는 031-634-799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가든조아
Seed the Dream, Unroll it.

- * 겨울 정원 관리법 강의 예정중입니다.
- * 각 프로그램 정원 25명내외입니다.(소규모그룹 클래스가능)

2015년 이천그린아카데미 상반기 교육안내 (약 12주강의-주1회/1일 5시간)
도시농업과 원에 통합교육인 이천그린아카데미 6기 예비수강생(20~25명내외)을 모집합니다.

가든조아 : 031-634-7990

2014년 체험/교육 하반기 프로그램

원데이 프로그램

Horticulture Program

세덤화분 식물을 키우기 어려워하는 일반인에게 관리가 쉬운 세덤화분 추천

계절별 샐러드박스 먹을 수 있는 채소를 투명 박스에 담아 가정으로 돌아가 키워본다

파종과 삼목 식물키우기에서 조금더 들어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해하고 확장시키는 삼목법을 배워본다.

소망화분 일상생활에서 묻혀있던 크고 작은 소망들을 엮어 식물과 함께 심어본다.

가족화분 가족과 함께 식물에 묻혀 오감을 깨우고 서로의 존재와 소중함 가족의 가치를 상기시킨다.

추석 귀리등 화분 톨립, 수선화, 무스카리 등 구근을 혼합식재 해본다. 기다림끝에 화려하게 피어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원데이/미술

점점프로그램

Horticulture Art Program

Painting & Planting 화분 또는 재배백에 나만의 디자인을 입혀 애정을 높이고 자신을 표현해본다.

지아미꽃 만들기 색과 크기가 다양한 씨앗을 활용해 자신의 얼굴 또는 친구, 가족의 얼굴을 표현해 본다. 내면 의식속의 감정이 드러난다.

꽃알 화분 깨는 즐거움, 자유로운 표현의 즐거움을 느껴본다.

아름다운 카드 압화를 활용해 마음을 담은 카드를 만든다.

크리스마스 트리 자연물을 이용해 연말 가정용 리스를 만든다.



예술/취미

점점프로그램

Art / Interest Program

정원 속 식물 사진찍기 자연을 내 마음과 의도에 맞게 사진에 담을 수 있는 팁을 배운다.

정원 속 수목화 정원에서의 모든 풍경을 수목으로 표현한다.

정원 속 세밀화 정원 속으로 들어가 자세한 관찰과 표현법을 배운다.

정원관리의 특징 정원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기본 개념과 실용팁을 배운다.

건강한 정원 디자인 식물의 생육을 고려한 건강한 디자인을 익힌다.

조경설계에서의 식물선택 조경설계인(대학생, 실무자, 공무원 등)이 갖는 설계와 식재에서의 접합점을 찾는다.

연못 조성의 관리법 연못의 조성부터 관리까지 통합지식을 익힌다.

구근의 생리와 식재법 관리까지 통합지식을 익힌다.

파종과 삼목, 등나무와 유로, 동자채의 특징 원예, 화훼업에 가까운 실무적 지식을 익힌다.

겨울정원 준비 겨울정원 준비 준비법을 익힌다.

원예/미술 국화분재의 모든것

아름다운 아카데미 전원생활 및 귀촌 귀농 준비를 위한 일반인 대상 기본 원예 수업

정원관리의 특징 정원에서의 고민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대한 해결과 발전 방안을 컨설팅한다.



견학

우리꽃농장 투어 원예, 화훼업 준비인 또는 일반인 대상하는 우리꽃 견학

Garden Culture Experience Program

청소년, 성인, 가족을 위한 정원문화체험



곤충이화분
Sedum Pot 5,000원 / 30분



공룡알화분 Dinosaur Egg Pot 15,000원 / 1시간



파종과 삼목
Seeding & Cutting 5,000원 / 30분



소망화분
Dream Pot 5,000원 / 1시간



샐러드박스
Salad Box 7,000원 / 1시간



가족화분 Family Pot 30,000원 / 1시간



지아미꽃
Seed Art 7,000원 / 1시간

가든조아의 정원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개인/단체에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중장년/ 노인/ 가족)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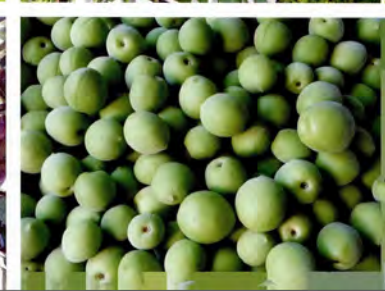
* 모든 프로그램은 단체 참여 가능(가격 문의) * 배송가능

* 체험안내 문의 : 블로그(http://blog.naver.com/gardenjoa777), 전화문의

가든조아 : 031-634-7990



열매, 비안의 수확이 있는
가을정원
 이수옥, 김준식 부부
"지유원" 탐방
 글/나진 우정아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보호

환경적인 문제인지, 계절의 변화는 인간들의 예상과는 점점 다르게 움직여지고, 자연재해를 뉴스에서 볼 때마다 위기감을 느껴 자연의 소중함과 덜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정원을 하는 가드너에게 덜 버리고 사는 것은 자금자족일지도 모른다. 불필요한 포장, 유통 등에 쓰이는 비닐, 종이, 스티로폼, 자동차로 인한 오염 등을 줄여주는 것 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이수옥씨의 정원도 채소, 과일 등을 자급자족 하여 환경보호에 일조를 한다. 남서울대학교 교수이자 KBS 스포츠해설 위원인 주인공은 바쁜 일정 중에도 일 정리를 해주고 잡초제거를 하면서 식물들의 병해충이나 상태를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아침 시간이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

정원의 친환경적인 재배법

정원을 가꾸면서 친환경적인 재배법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꾸지만, 방제에 있어서는 가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병해충이 오는 시기에 맞추어 저독성 농약을 소량만 사용해 방제하는 것이 나중에 병이 오고 난 후 쓰는 농약의 양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특히, 동네에 다른 집에서 옮겨 오는 병해충은 어느 순간 정원의 과수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예찰을 통한 정원 관리가 제일 우선인 것 같다고 주인공은 말한다. 거름은 정원에서 나오는 낙엽, 잡초 등과 음식물쓰레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변을 섞어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파묻어 2년 동안 숙성을 거친 후, 흙과 함께 섞어서 멀거름으로 충분한 양을 주고, 식물의 상태가 안 좋다고 느끼면 갯목을 포대에 넣고 2년 이상 숙성시켜 만든 액체비료를 물로 희석해서 식물 주변의 토양이나 직접 잎에 엽면스비 하면, 화학비료 없이도 충분히 정원의 정원수나 과수, 채소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과수정원과 병충해 관리

과수는 식용 가능한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과수는 40여종이 있다. 주인장은 과수를 자급자족 하기 위해서는 각 나무의 특성과 병해충 방제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주인장의 정원에서는 사과, 봉숭아, 자두, 포도, 보리수, 매실, 앵두, 블루베리, 살구 등 각기 종류가 다른 12그루의 과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 매화 나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과 함께 열매도 유용하게 쓰이지만 진딧물, 세균성 구멍병, 응애, 오갈병 등이 있으며, 한 두 번의 적기 예방으로 이길 수 있다. 특히, 병해는 발견 즉시 발병한 가지를 제거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은행나무

수명이 천 년에 이를 정도로 길지만, 생육이 느리기 때문에 가지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문에서 보이는 이 정원의 은행나무는 수형과 관계없이 편의



에 의한 진정으로 인해 어색함이 있지만, 비배관리와 배수관리를 잘 해서인지 상태는 좋은 편이다.

• 블루베리

산성토양(피트모스:사질토, 1:1)을 만들어 질소질 비료를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햇빛을 8시간 이상 봐야 열매가 잘 맺히고, 가지와 가지 사이에 통풍, 통광을 철저히 관리해 주어야 수관 내 온도 상승 및, 강우 후 습도 상승이나 병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온도 및 잎 줄기의 수분 존재 시간과 병해충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 자엽자두나무

원줄기에 열매가 열리는데, 원줄기에 열매가 열리는 종류는 병해에 약하기 때문에 가지와 가지 사이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항상 신경 쓰고 관찰해야 하고, 살구나무의 방제는 수간주사주입 방법을 이용해서 년 1회 실시해 년간 지속된다고 하니,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지인들에게 많이 추천한다고 한다.



• 포도

유기적인 비배관리가 중요하고, 어느 과수나 그러하겠지만, 무병해 대목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6~7월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므로 미리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과

밀거름이 중요하고,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키가 작은 사과 나무를 만들기 위해 위의 생장점을 제거해 주었다고 한다. 특히, 새들이 열매가 익을 때를 놓치지 않아서 그물을 쳐서 접근을 막고 있다고 한다.

• 앵두나무

다 커도 2미터 정도로 집안에서 키우기에 적당하다.





병해충이 거의 없고, 꽃과 열매가 아름다워 추천하고 싶은 과수라 한다.

• 대추나무

퇴비를 줄 때 나무 주위까지 깊게 파서 주어야 하며, 보수력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며, 마름무늬 매미충에 의한 빗자루병(파이토플라스마)병해를 조심해야 한다며, 병이 발생하면 바로 캐내어 없애 버려야 주위에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관심사 종자번식과 종자보관

요즘에는 과수의 번식에 관심이 생겨 종자 번식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종자의 번식을 위해서는 종자의 보관이 중요한데, 곰팡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바람이 잘 통하는 음지나 병동창고(-5도~5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종자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종자를 건조시켜 용기나 포대에 담아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두었다가 채취해서 다음해 봄에 파종하는 건조지장, 용기에 생석회나 숯을 건조제로 하여 종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넣고 용기의 입구를 파라핀으로 봉하여 공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원한 곳에 저장하는 밀봉지장(소나무 종자는 10년까지 지



장), 용기 속에 마른 모래와 종자를 섞어 보관해 두는 건사지장(참나무, 밤나무 등), 일반적으로 노천매장을 선호하는데, 종자를 매장하기 전 입고병약제로 종자를 소독한 후에 매장해야 썩어 날 때까지 땅속에서 피해를 덜 받는다고 한다. 또 과수는 정지, 전정이 중요한데, 시기는 낙엽 후부터 월동 후 수액이동 전 휴면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좋으며, 생육기 중에 하는 전정은 수세조절이나 동계 전정의 보원을 목적으로하며 잔가지는 잎쪽 눈을 원하는 방향으로 남기고 잘라서 수세를 조절할 수 있으며, 사람의 키에 맞춰 나무의 크기를 조절하면 수확하기가 쉽다. 이때 절단면에 도포제를 발라서 감염을 막아 주어야 한다. 주인장은 대부분의 과수를 변칙주간형으로 만들기 위해 정지전정을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형을 만드는 일이 쉽지가 않다고 한다.



1. 씨앗을 수확하는 시기와 절점이 필수



2. 종자 수확의 시기를 결정



3. 씨앗의 머리 절점을 수확한다



4. 종자의 절점상과 절점상과도 확인



5. 절점상과 절점상과도 확인



가을 정원에서 씨앗 수집하는 즐거움

가을은 대부분의 식물의 개화가 감소하거나 완료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정원에서는 다음 해의 정원을 위해 할 일 많은 시기이고, 씨앗도 수집하는 할 일이 많은 시기이다. 씨앗은 수집도 구매도 가능하다. 숙근 야생화, 일년생 식물, 나무 및 관목과 채소에서도 수집이 가능하며 물론 씨앗의 구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을 정원에서 수확하는 즐거움과 내년의 정원을 가장 먼저 계획하는 정원사에게 씨앗을 어떻게 수집하며 보관기간과 파종시기 등 정원에서 얻는 기쁨을 알아보도록 한다. 도보로 걷는 가까운 숲이나 정원에는 수집 씨앗의 식물들이 열매 수집을 기다리는 시기이다.

씨앗의 수확을 준비하고 있는가 점검이 필수

보통은 검정 씨앗을 수확하려고 기다리다 며칠 후 확인하면 이미 씨앗을 수확하기 전 모두 흩어져 없어진 경우가 빈번하다. 열매가 약 70% 정도의 녹색을 띠고 약간 누런 색으로 변하는 과정이 가장 발아가 좋은 씨앗을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알려준다. 쉽게 기억하자면 녹색종자의 수집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봄에 씨앗을 뿌려도 파종이 안된 옛일을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여 본다.

종자 수확 시 사전 허락이 필수

개인 소유의 정원이 아닌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종자 수확을 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토지에서 할 경우 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작업 하도록 한다.

종자 수확 시 포착! 포착을 꼭 준비.

수집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플라스틱 또는 종이 봉투, 표찰마크, 가위 및 장갑과 바구니 등의 준비물을 검토한 후 씨앗을 받는 즉시 분류하여 표찰을 하여야 정확한 명칭으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수집에 욕심을 부려 표찰을 하지 않으면 파종 시 더 많은 혼란을 만난다.

씨앗의 전체 머리를 수집하라

씨앗의 전체 머리를 수집하라. 그리고 큰 모양의 종자는 흔들리지 않도록 마름 종이에 보관하여 가방에 넣고, 조심하여 취급해야 소나무와 같은 씨앗을 얻을 수 있다. 흔들리면 종자를 잃을 수 있다.

종자의 정확한 보관방법

수집된 씨앗은 가지나 줄기의 이물질을 깨끗이 정리한 후, 건조하여 표찰을 한 후 종이, 비닐 봉투 혹은 플라스틱 박스나 밀폐된 유리병 안에 넣어 냉창고에 보관한다.

1. 녹색종자일 때 수집을 준비



2. 씨앗의 절점상과도 확인



3. 씨앗의 절점상과도 확인



4. 씨앗 수집 준비



5. 씨앗의 절점상과도 확인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10월

10월은 여름 꽃을 정리하고 가을에 꽃을 볼 수 있는 화단을 만들고, 정원사와 농부는 씨앗을 저장하고 내년을 준비한다. 그리고 내년에 보고 싶은 새로운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관상정원에서는 가을 화단용 식물과 화단을 만드는 방법을, 채소정원에서는 씨앗을 받고 저장하는 방법을, 정원관리에서는 나무 식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다. 먹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뭐라해도 씨앗의 중요성일 것이다. 씨앗 없이는 어느 누구도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다. IMF(외환금융위기)에 우리는 우리나라 종자회사 1, 2, 3위 업체 모두가 다국적 종자회사에 빼앗겨 버렸다. 그들은 왜 종자를 빼앗았는가? 정보화 시대 다음의 권력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여전히 군사력과 정보력이 중요하겠지만 기후변화 시대에는 식량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들은 식량 지배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씨앗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들이 순진하게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 씨앗을 수탈해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 종자를 이용해 제 2의 수탈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쌀이 개방 되었다. 나는 이 말을,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결코 보장 받을 수 없다는 말로 이해한다. 머지않아 터미네이터 씨앗, GMO(유전자 조작 식물체) 씨앗이 우리의 식탁을 오염시킬 것이고, 가장 좋은 약인 먹거리가 오염되면 건강 또한 보장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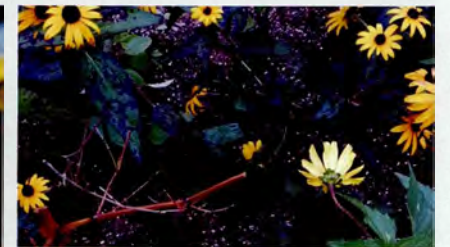
우리가 먹는 음식 중 많은 종류가 품종을 개량한 것들이다. 품종 개량한 종자들은 1세대 잡종으로 다음세대에서는 똑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나온다. 이 말은 또 다시 종자를 받을 수 없고 종자회사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자회사에서 씨앗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농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대농이나 중농, 소농 또는 텃밭농사(도시농업)를 하는 모든 농부들에게 작용된다. 종자회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식탁을 지켜내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여러 해에 걸쳐 종자를 받아 순종을 길러내는 일 즉, 다음 세대에도 같은 후대를 이어가는 종자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소개한 자가채종에 대한 책으로 '내 손으로 받은 우리종자'(안완식, 들녘)와 '씨앗받는 농사 매뉴얼'(오도, 들녘)이 있다. 소규모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가채종을 하면 좋은 것이다. 제일 무서운 일은, 세상의 모든 오염물질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화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되지만, 그러나 GMO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염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GMO가 처음부터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토종씨앗으로 만들어진 먹거리를 먹는 것이고 GMO 먹거리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손으로 씨앗을 받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농부(어떤 형태든 농사를 짓는 사람)의 권리이다. 이 권리를 종묘회사들은 함부로 침해한다. 그들이 농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은 생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다. 지적소유권은 생명체가 아닌 무기체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에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권력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못된 사람들과 국가들이 생명에 대해서도 지적소유권을 갖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작업을 한 결과 지금은 당연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종묘회사에서 품종(식물학적으로는 재배변종(cultivated variety)이 적절한 말이다.) 개량된 씨앗을 사는 것 자체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는 셈이다. 생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간이 또는 종묘회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지적재산권을 강조하고 비선진국들은 농부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 두 개념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은 소유하는 기쁨보다는 나누는 기쁨이 더욱 크기 때문에 나누어야 당연하다. 농부는 조물주께서 주신 씨앗을 거두고 저장하고 나누는 농부의 권리를 모두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을이 되면 들은 하늘과 울창한 단풍 그리고 알록달록한 국화라 불리는 꽃이 산과 들을 장식한다. 단풍은 녹색의 잎이 제 역할을 다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색을 선사한다. 겨울이 다가오면 단풍은 낙엽이 되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미생물이 만들어 내는 유기산, 호르몬, 효소가 또 순환의 한 리가 되어 식물의 자랄을 돕게 한다. 국화라 불리는 꽃은 대개 단풍잎으로 밤의 길이가 짧아지면 꽃이 피게 된다. 꽃을 거둬서 비닐하우스에서 시든 꽃 따주기와 인산, 칼륨 비료를 주고 지속적인 물관리를 하면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다.

>> 원추천인국 '골드스텀'(Rudbeckia fulgida var. sullivantii 'Gold sturm')



여름에서 가을까지 꽃이 피고 나비가 좋아하는 속근초이다. 원종은 북아메리카 원산이다. 키가 직립으로 자라기 때문에 바람에 넘어질 수 있으므로 중간에 가지를 땅에 박아 지주한다.

>> 하늘바라기 (*Helopsis helianthoides*)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꽃이 피고 나비가 좋아하는 숙근초이다. 원종은 북아메리카 원산이다. 원추천연국 '골드스탑'처럼 지주한다.

>> 코레옵시스 '문빔' (*Coleopsis verticillata* 'Moonbeam')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꽃이 피고 나비가 좋아하는 숙근초이다. 원종은 북아메리카 남부가 원산지이다.

>> 헬레니움 (*Helenium cvs*)



늦여름에서 가을까지 꽃이 피고 여러 가지 재배변종이 있다. 원종은 북아메리카 원산이다.



>> 왜성 개미취류 (*Aster cvs*)



개미취종류로 왜성으로 자라고 꽃색은 분홍색이다.

>> 만수국, 프렌치 메리골드 (*Tagetes patula*)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년생 초본이다. 원산지는 아메리카이지만 프렌치 메리골드로 불리고, 국명으로는 만수국으로 불린다.

>> 가을화단



1. 땅에 격자모양으로 줄을 띄우고 디자인 한 모양대로 가루 석회로 표시한다. 격자모양대로 줄을 띄우면 식물의 양을 계산하기에 쉽다.
2. 석회로 표시한 모양을 멀리서 디자인 한 모양과 비교하여 확인한다.
3. 식재 디자인한대로 식물을 심는다.

과수정원
Fruit Garden



한 여름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과수를 심을 때 일찍 수확하는 품종과 늦게 수확하는 품종을 잘 심을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유기재배 할 수 있는 과수의 폭은 넓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향나무와 배나무, 사과나무류는 맞지 않는다. 배나무에 오는 적성병(잎뒷면에 붉은색의 별모양의 돌기가 있다.)의 중간기주 식물이 향나무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향나무가 있으면 배나무를 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풍성한 수확

과수정원에서의 가장 큰 매력은 풍성한 수확에 있다. 지난 가을부터 가지를 전정하고, 퇴비를 넣어주고, 열매를 숙아주면서 모든 정성을 쏟아 붙다보면 나무는 열매로 답을 한다. 과일 바구니에 담긴 수북한 열매들이 먹음직스러움과 동시에 다양한 색깔로 식욕을 돋군다. 아삭아삭 생과일로 먹기도 하고, 잼을 만들어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저장 해 보자.



사과(Malus spp.)

어느 가정집에서 본 이 사과는 직경이 7~8cm로 작지만 맛은 대단이 좋다. 이 집에서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 유기재배를 하고 있다. 사과를 딸 때는 손가락으로 누르지 말고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비틀며 따는 시기도 중요하다. 너무 일찍 따면 맛이 나지 않고 너무 늦게 따면 저장성이 떨어진다. 수확하는 시기는 사과의 종류, 기후, 대목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경험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청개구리모양

사과를 가지고 청개구리 모양을 만들어 전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참 재미있다. 사과의 매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빨강색의 사과가 바탕을 이루고, 파랑과 노랑, 보라색의 사과가 포인트가 된다. 새콤달콤한 사과 향이 장난기 가득한 청개구리와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채소정원

Vegetable Garden

다양한 채소들 중에 토마토와 오이 씨앗은 초보자라도 쉽게 받을 수 있다. 토마토(가지과)와 오이(박과)는 분류학에서과는 다르지만, 채종방법은 아주 비슷하다. 열매채소의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씨앗을 파종한 그 해에 채종을 할 수 있다.

토마토는 자가수분(한 포기 내에서 또는 한 꽃에서 꽃가루를 받아 씨앗을 맺음)하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 다른 여러 종류의 토마토를 심어도 무관하다. 하지만 오이 같은 경우는 같은과의 채소와는 교잡하지 않지만, 같은 오이끼리는 꽃가루가 섞이면 모양이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오이를 심을 때는 한 장소에 같은 품종을 두포기 이상 심도록 한다. 씨앗채종시 중요한 부분은 오이와 토마토 씨앗에 끈끈하게 붙어 있는 젤라틴을 잘 분리해 내는 것이다. 채종하는 사람마다 다소 방법은 다르지만, 높은 온도(40℃)에서 하루정도 발효시킨 후에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방법은 동일하다. 고온에서 발효시킴으로 인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가지는 젤라틴이 씨앗에서 잘 분리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반점세균병(斑點細菌病)과 반염세균병(班葉細菌病)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토마토 (*Lycopersicon esculentum* cvs)



토마토1. 토마토는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수확하는데, 너무 말랑말랑 하기 전, 가장 먹음직스러울 때 수확한다.



토마토2. 수확한 토마토는 그릇에 넣고, 물을 조금 부어 준후, 비닐로 씌운다. 비닐을 씌운 그릇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는데, 비닐안의 온도가 40℃ 이상이 되면서 씨앗이 소독이 되고, 씨앗에 붙어 있는 젤라틴이 잘 분리된다.



토마토3. 토마토 주변에 흰 거품이 생기면 깨끗이 씻어 준다.



토마토4. 거름망에 넣고 손으로 비비면서 깨끗하게 씻어낸다.



토마토5. 과육이 깨끗하게 씻겨 나간 씨앗.



토마토6. 물에 넣어 꼭징이와 과육들을 완전하게 걸러낸다.



토마토7. 거름망에서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흰 종이나 양파망에 넣어 둔다. 흰 종이에 널 경우는, 토마토 씨앗에 붙어있던 젤라틴이 마르면서 종이에 달라붙기 때문에 하루정도 지난 후에 종이를 바꾸어 주면 좋다.

>> 오이 (*Cucumis sativus* cvs)



오이1. 한여름의 태양 빛을 받으며 오이가 익어가고 있다.



오이2. 오이 겹집이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변하면 수확한다.



오이3. 수확한 오이는 손으로 눌렀을때, 말랑말랑한 느낌이 날때까지 그늘에서 일주일 정도 후숙시킨다.



오이4. 잘 후숙된 오이는 칼을 이용해 반으로 가른다.



오이5. 오이 속의 씨앗을 손가락으로 파내는데, 이때 씨앗 뿐만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젤라틴 부분까지 같이 발라낸다.



오이6. 그릇에 담아낸 씨앗과 젤라틴을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 소독시킨다.



오이7. 햇빛에서 하루 이틀 놓아두면 흰 거품이 생기는데, 이때 거름망에 넣고 손으로 비비면서 깨끗하게 씻어낸다.



오이8. 꼭징이와 젤라틴이 물 위로 떠오르는 모습



오이9. 알이 잘 영근 씨앗만 골라내서 말린다. 흰 종이나 양파망에 널어 일주일 정도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 수박(풀무학교에서 얻은 모종) (*Citrullus lanatus* cvs)



수박1. 캔 맥주 정도의 크기로 작지만 수박을 일품이며, 가족이 모여 1조각씩 두 번에 걸쳐 나눠먹었다.



수박2. 반을 가른 상태 씨앗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다.



수박3. 씨앗의 색깔이 재미있게 생겼다.

정원관리

Garden Maintenance



일반적인 관리(Regular Maintenance)

- 시든 꽃 따주기(다알리아, 사루비아 - 시리 전까지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
- 다알리아 구근개기(추위에 약한 종들은 구근을 캐서 건조한 토양에 저장했다가 봄에 심는다.)
- 피라칸사 전정(겨울에 열매색을 잘 보기 위해 열매가 달린 가지 윗부분을 자른다.)

번식(Propagation)

- 숙지삼목(올해 자란 딱딱한 가지삼목) 예) 장미, 낙엽관목류

>> 나무식재(Transplanting)



1. 뿌리분의 직경을 잴다.



2. 뿌리분의 직경만큼 표시를 한다. 중심을 잡고 끈을 이용해서 돌려준다.



3. 곁흙(유기물이 풍부한 층)과 속흙을 분리해둔다.



4. 뿌리분의 깊이만큼 흙을 파고, 바닥은 포크로 찌른다. 이때 측면도 잘 찌른다.



5. 뿌리분의 깊이를 확인한다.



6. 엉켜진 뿌리를 잘 펴준다. 이때 위로 향한 뿌리는 전정가위로 자른다.



7. 뿌리가 사방으로 잘 뻗을 수 있게 삼으로 열심자로 가른다.



8. 바닥에 곁흙을 먼저 넣고 발로 잘 밟아준다.



10. 곁흙을 넣고 공기층이 생기지 않게 잘 밟아준다.



11. 지주를 한다. 이 때 바람이 센 방향으로 지주의 머리가 가게한다.



9. 뿌리분의 높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12. 유기물로 덮어준다.

정원관리

Garden Maintenance





(사진 : 식물을 직접 화단에 만드는 대신에 이렇게 각각의 식물들 잘 배치해서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 있다. 영국Great Dixter에서)

10월, "가을정원"의 정리 기간



글 사진 서수현 가든디자이너

10월 정원의 문을 열면 빨강계 노랗게 물들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고 가을 꽃들을 한창 감상 할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가을이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원에서의 10월은 1년 중 마지막 시기. 즉, 내년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 분주해 진다. 정원디자이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 어떤 종류의 식물을 계절별로 심을지 늘 고민한다. 하지만 늘 계획한 대로 정원이 유지되지는 않는다. 특히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식물 종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 계획 한대로 소중한 정원이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월이 정원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10월 정원에서의 체크리스트

꾸준히 해주어야 하는 정원 일

- 빛이 비추는 일이나 장초들 혹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꽃들을 잘라서 없애준다.
- 특히 푸른색의 잎을 가진 잡초들을 제거 할 때는 일만 따 줄 것이 아니라 뿌리들 그대로 뽑아낼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뿌리가 남아있을 경우 내년에도 다시 잡초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2 아름다운 정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소리 없이 365일 꾸준히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잔디밭

- 화단으로 침투하고 있는 잔디를 잘라준다. 혹은 경계를 확실히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방부목을 이용하되 경계를 높게 만들어 줄 필요 없이 땅속에 길게 넣어 라인만 생기게 만들어 주면 된다. 혹은 스테인레스 재질을 가진 경계물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 색이 누렇게 변하고 있는 일들은 잘라내어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

나무, 관목 그리고 덩굴식물

- 추위에 약한 식물들은 화분에 옮겨 심어주어 겨울에 실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낙엽이 떨어져 있는 화단은 깨끗하게 잎을 치워주고 다년생의 식물들이 자리잡고 있지 않은 빈 공간의 경우 흙을 골라준다.
- 겨울에 강하게 부는 바람을 지탱할 수 없는 나무의 경우 끈을 이용하거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준다.
- 늦가을에 꽃을 피는 덩굴 장미나 여러 번 꽃을 피운 오래된 장미의 경우 전정을 해준다.
- 오래되어 색이 바랜 가지는 잘라주는 것이 좋다.
- 큰 식물이 상가져 있는 컨테이너 화분의 경우 옮기기 힘들기 때문에 부직포등과 같이 겨울에 뿌리 쪽이 얼지 않도록 감싸주어 보온을 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베란다에 식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식물을 옮기거나 보온을 잘 해주어야 한다.

꽃나루, 관목 그리고 덩굴식물

- 화단에 떨어진 꽃이나 잎들 또한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 다년생 식물이지만 추위에 약한 식물 화분으로 옮겨 심고 실내로 들여온다. 양봉리를 가지고 있는 구근식물의 경우 우리 나라 겨울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화분에 옮겨 심어 실내로 들여오는 것이 좋다. 단, 흙 속에 따뜻하게 보관할 경우 봄이 오는 줄 착각하고 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영국이나 네델란드의 경우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봄에 피는 구근을 심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 해 꽃이 피지 않을 수도 있다.
- 창고로 유럽에서 9월 말쯤 수선화를 심어주고 히어인 스나 톨립은 10월에 심거나 11월에 땅속에 심어준다. 여름에 꽃이 피는 구근식물, 칸나, 글라디올러스들은 서리와 같은 추위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빼내어 주어야 하지만 달리아는 잎이 추위 때문에 강게 변할 때 제거해 주면 된다.



(사진4 아름다운 정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소리 없이 365일 꾸준히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채소 및 허브들

- 집에서 허브나 채소를 키우고 있다면 10월은 수확을 하고 난 후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 채소를 심었던 용기나 가드닝 도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자. 용기의 경우에도 남아있던 박테리아 등으로 인해 다시 사용했을 경우 병충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겨울에 심을 수 있는 배추의 경우 새로 정리한 화단 혹은 컨테이너에 심어준다.
- 영국의 경우 이때 양파나 마늘을 재배하여 시원하고 밝고 건조한 장소 같은 곳에 보관을 하는데 줄기를 이용하여 매듭을 지어 창고 같은 곳에 걸어둔다.
- 영국에서 감자는 없어서는 안될 작물이다. 따라서 장기간 땅속에 보관한다. 서리가 내리기 직전이나 땅이 축축해지기 전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땅속에 둔다.



(사진4 : Herlerton House의 정원. 노부부가 개인 주택정원을 1년에 한번 오픈하여 방문객들에게 자신들이 키운 꽃을 한 다발씩 판다. 입장료와 식물을 판 수익금은 모두 기부를 하는데 쓰인다.)



과일

- 우리나라에서는 초봄에 딸기를 심는데 영국에서는 이때 딸기를 심기 시작한다. 4월에 모종을 사서 심을 수 있지만 이때 심은 식물이 첫해 수확을 크고 튼실하게 할 수 있다.



온실

- 유리온실을 자신의 정원에 만든 경우, 겨울이라고 해서 온실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유리창문에 일명 북쪽이라고 불리는 비닐을 창문에 붙여주는 것이 좋다. 확실히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온도를 올려주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온실 안에 화로로 열을 내지만 식물이 건조해 지고 생육이 나빠지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서는 뜨거운 물이 돌면서 열을 낼 수 있는 난방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정원 화단을 새롭게 만들고 싶을 때

- 타사의 정원처럼 꽃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정원은 만들고 싶는데 언제부터 혹은 어떤 것부터 할지 고민이라면 주저 없이 10월에 계획을 세워보자. 우선 화단을 비우고 잡초를 제거해 놓자. 흙을 고르고 뒤집어 주며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흙 속에 산소를 가득 넣어준다. 어느 정도 잡초가 제거된 것 같으면 겨울 동안 검정색 비닐로 땅을 덮어두어 남아있던 잡초가 광합성을 하지 못해 스스로 죽도록 만들어 준다. 이렇게 준비를 해 둔 뒤 봄이 되어 식물을 심기 전 배합토를 사서 흙과 섞어 준 뒤 원하는 식물을 심어준다.

거름을 만들기 좋은 달.

-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분에 식물을 키울 때 시중에 팔고 있는 배합토라는 흙을 쓰는데 이는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영양분을 넣어 만든 흙이다. 식물도 인간처럼 꼭 필요한 영양분들이 있어 어떤 것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한다.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러한 거름을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보통 정원을 정리하고 나오는 식물을 이용하여 만든다.



가든인 Tip

'compos'라고 하며 질소와 탄소의 영양분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잡초를 제외한 초목의 잎들을 따로 모아두어야 한다. 이런 그린재료들과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 재료 (과일껍질, 채소 피끼기 등)를 거름을 만들 통에 넣고 나뭇가지나 신문지, 박스 등의 자연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재료들을 중간 중간 층을 나누는 용도로 넣어주어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린재료들은 쉽게 분해가 되지만 신문지와 같은 재료들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기가 잘 들어가도록 구겨주거나 잘게 찢어 넣어주면 도움이 된다. 또한 수분이 있어야 박테리아나 균들이 분해를 잘 시켜주기 때문에 분무기로 신문지에 뿌려주며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정원사에 따라 이렇게 만든 흙을 기존 화분의 흙과 1:1 혹은 다양한 비율로 식물에 맞게 섞어주며 흙을 관리한다.



(사진5 : Herlerton House의 정원. 노부부가 개인 주택정원을 1년에 한번 오픈하여 방문객들에게 자신들이 키운 꽃을 한 다발씩 판다. 입장료와 식물을 판 수익금은 모두 기부를 하는데 쓰인다.)

정원은 늘 일이 많다.

꾸준히 잡초를 제거하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세 엉망이 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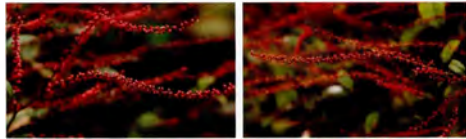
특히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소규모의 정원들을 보면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보기 싫어지는 곳도 적지 않아 늘 아쉬움이 남는다.

영국에는 개인 정원들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정원사가 있거나 주인이 늘 정원을 관리할 만큼 정원에 관심을 쏟는다. 그래서인지 정원사라는 직업이 가장 행복한 직업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원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고 정원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스럽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원 산업 또한 많은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요즘 정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정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다행이지만 관리는 여전히 소홀하다. 매년 엉망이 되는 정원을 위해 새롭게 만들기 보다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잡초와 덩굴 잡초"를 철저히 관리



이삭여뀌(*Persicaria filiforme*)

이 잡초의 꽃을 이용해서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천렵이라고 표현한다. 여뀌의 꽃을 따서 돌로 짓찧어 낸 즙을 개울에 풀면, 물고기들이 순간적으로 기절을 한다. 여뀌의 꽃에 약간의 독성이 있고, 이 독성이 그리 심한 게 아니어서, 기절했던 물고기도 금세 회복될 뿐 아니라, 사람에게서는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봄의 시간부터 정원은 잡초와의 전투 전이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불필요한 식물들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른 아침 커피를 마시며 약 30분간 눈으로 보아둔 정원의 침입자, 잡초를 하나하나 알아가며 호미를 사용하지 않고 어린 싹일 때 제거해야 쉽고 빠르다. 아마도 정원사에게는 날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항목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집안을 쓸고, 가꾸는 일처럼 정원도 가꾸고 돌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식물을 아름답게 가꾸며 보호, 관리하는 일이 수반된다. 모든 식물의 번식이 잡초처럼 광속도로 성장을 한다면 정원사는 쉽게 정원 안에 많은 식물의 번식을 쉽게 맞이하여 많은 꽃들의 향연도 맛을 텐데, 상상의 나라를 펼쳐본다. 혹은 잡초의 번식력을 연구하여 멋진 신품종을 개발 한다면 모든 산천초목과 길가에서 아름다운 꽃을 쉽게 모두가 누릴 수 있을 텐데, 꿈을 꾸며 기다리지만 아직도 잡초와의 전쟁은 늘 정원사에게 도전이고 숙제로 남아있다.

한삼덩굴(*Humulus japonicus*)



가시박(*Sicyos angul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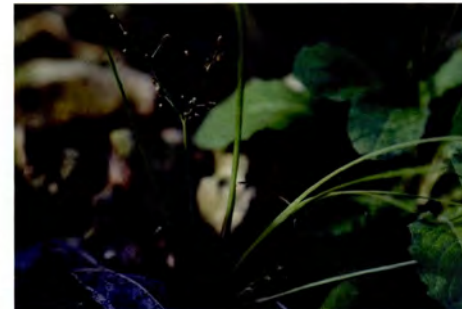
미국실새삼(*Cuscuta pentagona*)



가온이 상승하면서 덩굴잡초의 성장도 올 해는 매우 완성한 시기인 것 같다. 덩굴잡초의 종류로는 한삼덩굴, 메꽃, 가시박, 박주가리, 기생잡초로 미국실새삼 등이 있다.

잡초는 식물에 기생하여 성장하면서 토양의 양분을 빼앗으므로 정원수의 성장에 큰 해를 주며, 식물뿐 아니라 잡초는 작물의 체온, 수온, 지온을 저하하여 결국은 꽃의 개화 감소 및 수확감소를 가져온다. 잡초는 식물병원균의 중간 기주이거나 해충의 서식처 및 월동 처를 제공하여 발생을 유지, 조장하여 작물에 피해를 주며 잡초 종자가 섞이면 곡물이나 종자의 품질이 떨어지고, 목초에 잡초가 섞이면 기호성과 사료 가치가 떨어진다. 목아지 잡초는 가축에 중독을 일으키거나, 뿌리에서 유해 물질을 분비하는 잡초도 있다. 잡초를 그대로 갈아엎으면 토양 유기물을 증가시킨다. 정원내의 잡초 번식은 바람이나 물 등에 날아가고 때때로 지하, 혹은 종자에 같고이나 가시가 돋힌 종자는 동물에 의한 전파도 있으며, 농작물의 종자나 퇴구비, 가축의 분뇨, 농기구 등에 의해 전달도 있어 항상 작업을 마친 후 정원도구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잡초는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가을에는 더 많은 잡초를 가꾸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봄에 아름다운 꽃과 건강한 나무를 정원에서 만날 수 있다.

정원 초보자에게 잡초는 아주 무서운 숙제이다. 정원을 꾸미고, 씨앗을 뿌린 후 매일 관찰하며, 파란 새싹을 보며 부분 꿈을 꾸다가, 본래의 씨앗은 어디로 가고 훗날 잡초만 무성한 꽃밭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잡초의 방지로 식생매트의 식물을 심어 잡초가 자랄 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잡초를 물을 주어가며 키우는 에도 비밀비재하다. 다 재미있는 추억이고 약 3년의 초보 정원사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몇 가지 잡초에 대한 대응책이 생기며, 요즈음은 잡초가 약초라며 잡초였던 식물이 각광받는 지역도 많다. 명아주, 민들레, 어성초 등을 발에 대규모로 경작하여 농가 소득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잡초의 종류와 생태에 관하여 짧은 정보로 5월 초순 이후부터 9월 중순까지 약 5개월간이 가장 잡초가 완성되는 계절이다. 정원에서 발생하는 잡초의 종류를 정리하여 보았다.

구분	생태	초종
본과잡초	일년생	
	월년생	바랭이, 강아지풀, 왕바랭이, 독새록
	다년생	
동산이류 (사초과)	일년생	방동산이, 참방동산이, 향부자
	다년생	
광엽잡초	일년생	쇠비름, 닭이장풀, 명아주, 여뀌바늘, 망초, 갈퀴
	월년생	덩굴, 지칭개썩, 메꽃, 쇠뜨기, 토끼풀
	다년생	

잡초는 우편로 없이 어디든 무료로 전달된다.

열려있는 공간이면 어디든 공간적 전파로 유성번식 종자가 바람, 물, 동물, 인간 등을 통하여 이동하는 형태는 솜털, 깃털 등으로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고투리가 물에 부유하는 소리쟁이, 갈고리 모양의 돌기 등으로 인축에 부착하는 도깨비바늘, 결실하면 고투리가 터져 흩어지는 달개비 등이 있으며, 시간적으로 전파하는 다년생 영양체로서 포도경(범음썩바귀), 뿌리줄기(가래), 덩이줄기(향부자), 비늘줄기(자주방아밥) 등도 있다. 그래서 늘 민감하게 정원이나 자연을 돌보아야 한다. 잡초를 무시하다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가 숨이 막혀 죽거나, 식물도 숨쉬지 못하거나 영양분 부족으로 고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W잡초의 종자는 토양에서 발아가 쉬운 종자는 수명이 짧고 어려운 종자는 길으며, 종자의 미생물에 대한 저항성, 발아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분함량이 낮고 저온이며, 산소 분압이 낮은 조건은 종자의 수명을 길게 한다.

잡초종자 발아환경은 보통의 식물 처럼 빛(光)이 기본이고 경지 잡초의 대부분은 호광성이며 광은 휴면타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잡초는 최소량의 산소공급이 요구되므로 번식이 더 많은 것 같다. 온도는 발아의 적온 15 ~ 30℃ 이고 최고 25 ~ 45℃이므로 정원사는 잡초에 대한 민감함과 부지런함으로 정원에 좋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잡초제거를 적기에 해야 일을 줄 일수 있다. 잡초 방제 방법으로는 기계적 방제법으로 수취, 베기, 경운, 소각, 관수, 훈연 등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물학적 방제법과 화학적 방제법이 있다. 생물적 방제법으로는 식해성 곤충인 천적의 이용과 특정식물을 선별적으로 가해하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수생잡초를 선택적, 비선택적으로 방제하거나 인접식물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방제하는 방법도 있다. 화학적 방제법으로는 제초제 사용이고, 제초제를 사용후에는 반드시 사용도구(농약통)를 세척하고 물에 희석해야 한다.



옥수수 하모니카 불며 기차길 건너던...

옥수수하면 생각이 난다.

1950년대 어린 시절 인천에서 살 때 동리 어귀에 있는 수인선 기차 길 위를 켜 옥수수자루를 입에 물고 지금은 벌써 고인이 되신 누나와 와 함께 떨어지지 않기 내기를 했던 기억이 새롭다. 또 옥수수를 따고 나면 줄기를 잘라서 껍질을 벗겨내고 속 줄기의 단물을 빨아먹던 시절이 생각난다. 약간 짭짤하면서도 단 그 맛은 요즘처럼 사탕이 흔하지 않던 그 시절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주전부리의 하나였다.

강냉이 또는 강내이, 강내미, 옥시기라고도 불리는 옥수수는 남아메리카의 멕시코가 그 원산지이다. 세계 3대 작물 중의 하나인 옥수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596년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의하면 '옥촉백종출서토종자적우(玉蜀黍種出西土種者亦罕)'라 하여 서쪽 나라인 중국에는 들어왔으나 아직 보급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옥수수는 그 용도가 식용, 옥수수기름, 가축 사료 외에도 대단히 다양하다. 전분을 원료로 하는 산업 분야에 가장 중



글 사진 안완식 토종씨드림 대표



강원도 병창의 옥수수밭



1. 옥수수 곡립의 여러가지 2. 옥수수의 수꽃(개교리) 3. 옥수수의 암꽃 4. 과산 검은미니찰옥수수 5. 주먹찰 진부면송정리 김옥춘(70) 6. 평창 진부 노을형(80) 주먹찰옥수수 7. 곡성 검은찰 8. 함성 쥐이빨옥수수 9.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김춘기(64세)

요한 작물로서 시럽, 녹말, 각종 당류의 원료가 되며 조미료, 의약품, 시약, 화장품, 주류, 과자류가 만들어진다. 그 외에도 도료, 인쇄, 제지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이용되며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되는 제품이 무려 2,000여 종에 달한다.

옥수수의 주성분은 당질이며 지질과 단백질의 함량도 적지 않다. 항색종인 경우에는 베타틴 A가 풍부하다. 그 외에도 비타민 B1, B2, B6, 비오틴, 니코틴산, 판토텐산, 피리독신과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옥수수의 단백질에는 필수아미노산인 리신이 들어 있지 않고 트립토판도 거의 없어 질이 떨어진다. 단백질의 필수아미노산 구성이 불량하여 식량으로 할 경우에는 갑자기 콩과 섞어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옥수수 기름 속에는 약 95%의 트리글리세라이드와 기타 지방산 외에도 천연 항

산화물질인 토코페롤(비타민 E)이 들어 있어 장기간 저장해도 품질의 변화가 적고 맛이 부드럽다. 또한 토코페롤은 체내에서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여 세포의 생명을 연장하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이성화 전분당은 감미도가 설탕과 비슷하여 인슐린의 작용 없이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설탕 대신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토종 옥수수수염은 전통적으로 민간요법의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옥수수수염 속에는 기름, 정유, 고무질, 수지, 사포닌, 크립토산틴, 아스코르빈산, 판토텐산, 비타민 K, 이노시톨, 알카로이드 외에도 여러 종류의 미량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뇨 작용, 이담 작용,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이 있으며 담낭염, 담도염, 황달성 간염의 경우에는 황달이 빠진다. 콩팥 환자의 경우에는 소변량이 많아지

고 요단백이 없어진다. 옥수수 기름 추출 시 얻어지는 부산물은 최근 치주 질환 치료제인 ZML의 원료로서 국내의 제약회사에서도 개발하여 시판중이다. 메이진(Maysin)이라는 성분은 옥수수수염 속에서 나온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옥수수 이삭을 해치는 유충들의 생장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무공해 해충방제제 개발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옥수수의 유전자원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그 동안 수집·보존된 우리의 토종 옥수수가 큰 몫을 담당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토종 옥수수는 속기에 따라서 울옥수수, 울강냉이, 늦옥수수 등으로 불리고 성질에 따라 찰옥수수, 메옥수수로 나뉜다. 또한, 알맹이 모양에 따라 쥐이빨옥수수, 튀김옥수수, 주먹찰, 미니찰옥수수, 색깔에 따라서 검은찰옥수수, 알



진부 호명길 최연화씨와 메옥수수

복찰, 흰찰옥수수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여름이면 인기가 좋은 찰 옥수수를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찰옥수수의 경우에는 중남부 지방에는 주로 흑찰옥수수가 많고 중북부 강원도에서는 흰색의 주먹 찰옥수수나 흰찰옥수수와 검은찰옥수수등 다양하고 많이 발견된다. 요즘은 찰옥수수도 시중에서는 대학찰이나 미백 등 F1품종들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 메옥수수는 주로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토종 옥수수의 색깔도 흰색, 검정색, 붉은색, 회색, 흑청색 등으로 다양하며, 남의 꽃가루받이를 해야만 열매가 달리는 특성 때문에 '크세니아' 현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색이 섞여진 알록이옥수수도 볼 수가 있다.

검은 미니찰옥수수와 주먹찰옥수수

찰옥수수의 분고장은 누가 뭐라 해도 평창, 정선이 아닐까 싶다. 정선군 남면의 신흥선(65세)씨는 정선에서 태어나고 정선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옥수수와 땀 수 없는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15cm 크기의 흰찰옥수수와 20cm 정도 크기의 흰메옥수수 자루를 꺼내 주면서 메옥수수는 점차 주식으로서의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찰옥수수는 아직도 별식으로 남아 있다며, 찰옥수수를 대거서 팔과 함께 꼭 삶아 간을 하면 그 존덕하면서 도 달착지근한 맛이 일품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옥수수를 간식으로 먹기를 꽤나 즐기는 편이다. 한어름에는 도로변에서도 쌓아 놓고 판다. 최근에는 익히서 콩콩 얼려 두는 옥수수 저장법이 개발되어 계절에 관계없이 도시의 변화가에는 즉석에서 술에 옥수수를 삶아 판다. 우리 민족만큼 찰짓을 좋아하는 민족도 세계에 없는 듯하다. 무엇이든 '메'보다는 '찰'을 좋아하는 것 같다. 특히 음식에서 찰떡, 찰밥 등 찰곡식으로 만든 찰것이 그렇고, 식량 작물 중에서도 찰벼, 찰조, 찰수수, 찰옥수수, 찰기장이 그렇다. 또 과일 중에도 속이 딱 차고 길에 털이 없는 것을 찰복숭아, 찰토마토라고 하여 좋은 의미로 '찰'자를 하나 붙인다.

찰옥수수 중에는 강원도 진부 지역에서 옛부터 재배해 오던 주먹찰과 쫄깃한 맛의 검은미니찰옥수수를 빼놓을 수가 없다. 주



진부 호명길 최연화씨와 메옥수수



메옥수수의 열매



옥수수의 열매



옥수수의 열매(크세니아현상)



먹찰은 15cm 정도 되는 길이로 알맹이가 작은 편인데 옥수수자루가 달렸던 쪽이 유난히 굵고 마치 주먹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평창군 진부면 수향리로 출가해서 30년을 살아온 권순덕(52세) 아주머니는 내년에 다시 뿌릴 주먹찰 종자를 뒷마루벽에 가지런히 걸어 놓으면서, 최근에 주먹찰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귀뼉을 했다.

검은찰옥수수는 전국적으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적응성이 높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일 게다. 충주시 이류면 수주리 탐말에 사는 이갑순(56세) 아주머니는 근처 동리에서 5년 전에 검은찰옥수수를 가져왔다고 흰찰옥수수와 같이 심으면 서로 옮겨서 안 된다고 하였다. 옥종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쉽게 아는 현상이거나 옥수수의 '크세니아 현상'을 시골에 사시는 아주머니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검은찰옥수수는 이식과 알맹이가 작지만 제철에 따서 흰물이 약간 나올 때쯤 소금을 조금 넣고 쪄면 그 씹히는 맛이다른 옥수수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란다. 찰옥수수는 알맹이의 껍질이 다소 두꺼운 껍질이 있었는데 작물시험장의 옥수수연구팀이나 흥천의 옥수수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찰옥수수 품종을, 그리고 전 충남대학교 교수였던 최봉호 박사가 껍질이 얇으면서도 자치고 수량이 많이 나면서 맛있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였는데 전남 보성과 강원 제천의 토종 찰옥수수가 이 버이로 공헌하였다.



강원도 옥수수 재래종의 대명사 메옥수수

강원도에서 재래종을 대표하는 작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감자이고, 그 다음이 아마도 옥수수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으로 보아서는 옥수수를 앞세워야 할 것 같다. 평창, 정선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는 아직도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우리의 재래종 메옥수수를 고집스럽게 재배해 오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김춘기(64세) 아주머니는 겁게 탄 얼굴에 평생 농사일로 거침이진 두툼한 손으로 금년에 수확하였다는 메옥수수를 자랑스럽게 잡고 환한 웃음을 짓는다. 길이가 무려 35cm에, 옥수수 알이 굵어서 보기만 해도 '엄청나다'를 연상케 하는 우리의 순종 메옥수수다. 우리 일행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옥수수 알맹이가 1줄에 48알씩 12줄이나 박혀 있으니 한 자루에 무려 576알이나 달려 있는 것이다. 토종을 연구하는 나로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옥수수를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대로 물려 내려오면서 수확 후 가장 큰 옥수수자루만을 골라서 종자로 보존하고 심어온 농민 자신들에 의해 이루어진 옥종이며, 또 이것이 재래종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다. 그곳에는 메옥수수 외에도 여러 종류의 토종들을 보존하고 있었다. 거문리가 영동고속국도 하진부에서 10여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도로의 포장이가 가장 늦게 이루어진 덕분(?)에 그렇게 많은 재래종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 개발, 산업에 따른 국도포장완화와 토종의 보존 정도가 완전히 반비례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부 호명길 최연화씨와 메옥수수



주먹찰옥수수가 달린 모습

강냉이튀김에 제격인 쥐이빨옥수수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평창강이 맑게 흐르고 그 지류를 따라 하안미에서 하반정교를 건너 2km쯤에서 좌회전을 하면 미남마을 한가운데에 새로 지은 양옥 한 채가 보인다. 이기철(48세) 씨. 그는 나이에 비해 우리 토종에 대한 관심이 컸다. 조부 때로부터 3대째 그곳에 살면서 부인은 농민후계자로 또, 본인은 농촌지도자로서 우리 농촌의 모범 농가를 이루고 있었다. 어머님이 작고하시기 전부터 가꾸어 온 토종들에 대한 애착심에서 한 가지도 버리지 않고 소중히 보존하였었다. 양옥의 거실 천장에는 찰옥수수, 튀김옥수수, 누런콩, 강낭콩, 팥, 까치콩 말고도 여러 종류의 씨앗종자 봉투가 50여 개 이상 가지런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 중에서도 벽에 걸려 있던 10cm 정도의 크기로 작아서 귀여운 마을마져 들게 하는 흰색, 노란색, 붉은색, 검은 색깔의 옥수수가 내 눈길을 끌었다. 이기철 씨는 그것을 쥐이빨옥수수라고 설명해 주었다. 쥐이빨옥수수는 알 모양이 작고 마치 쥐의 이빨처럼 뾰족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란단. 키가 크지 않고 한 대에 2~5자루가 달리지만 요즘의 개량된 새 품종보다 수량은 훨씬 떨어진다. 쥐이빨옥수수는 덜 여물었을 때 쪄서 먹으면 흰찰옥수수와는 색다른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튀김용으로도 그만이다. 냄비에 옥수수알과 소금을 조금 넣고 볶으면 잘 튀겨지고 고소한 강냉이가 된다.



진부 호명길 최연화씨와 메옥수수

안완식박사의 토종재료 레시피

올챙이국수

강원도의 대표적 산물인 옥수수를 불러 곁게 간 다음, 국수를 뽑아 끓인 부드러운 고소한 옥수수 국수!

재 료 : 옥수수 3컵, 환장 1컵, 깨소금 · 소금 조금씩

1. 알이 굵고 고른 옥수수알을 준비하여 깨끗이 씻은 다음 찬물에 4~5시간 정도 불렸다가 밧돌에 곱게 간다.
2. 환장은 깨끗이 씻은 다음 소금을 조금 넣고 살짝 삶아 믹서에 갈아서 콩국을 만든다.
3. 갈아 놓은 옥수수를 체에 거른 후 앙금이 가라앉으면 물을 부어 걸쭉하게 풀을 쏜다.
4. 옥수수풀을 구멍 뚫린 바가지나 국수틀에 붓고 뽑아 한 번 끓인 다음 콩국을 부어 먹는다.



생활 속의

민간요법

옥수수수염을 달여 공복에 차를 마시듯 복용하면 이뇨 효과가 뛰어나며, 신장병 · 당뇨병을 낮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 옥수수수염에는 담즙의 분비를 돕는 작용과 혈액 속의 지방량을 줄이는 약효가 있다. 담낭염이나 담석증에는 말린 옥수수수염 30g에 물 3컵을 붓고, 물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 하루에 세번씩 꾸준히 복용하도록 한다.

옥수수의 씨눈에는 올레산, 리놀레산 등의 불포화지방산과 레시틴,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영양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옥수수의 씨눈에 들어 있는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치를 낮춰 주는 작용을 하며, 미용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는 피부의 건조와 노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가을구근식재(추식구근의 식재)

원예가들이 가장 바쁜 계절, 가을이 무르익었다. 자고로 가을을 바쁘게 보낸 원예가일수록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다. 이번에는 추식구근 식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구근류는 왜 가을에 심을까?

많은 종류의 구근류를 가을에 심으라고 권한다. 왜 그럴까? 추식구근은 대부분 온대지방 원산의 식물인데 온대지방에는 겨울이 존재한다. 온대지방의 구근식물은 일정 기간의 저온을 받고 나서야 싹이 트게 진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온대지방 원산의 구근은 대부분 가을에 심는 것이다. 개중에는 아네모네, 프리지어처럼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가을에 심는 구근식물도 있기도 하다.

추식 구근의 종류

튤립, 수선화, 크로커스, 콜치쿰, 치오노독사, 알리움, 백합, 프리지어, 아네모네, 무스카리, 히아신스, 라넌큘러스 등이 있다.

참고로 백합은 봄에 판매되는데, 백합이 추식구근에 분류되는데 봄에 판매되는 이유는, 봄에 판매되는 백합은 저온처리를 거쳐서 수신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즉 백합을 1년간 날리는데 성공했다면 그 다음해부터는 가을에 심어야 한다.

구근 고르는 법

구근은 크고 매끈하며 병이 없는 것을 고르면 된다. 이 표현이 너무 어렵다면 청과시장에 가서 마늘과 양파를 고르는 느낌으로 고르도록 하자. 맛있게 생긴 구근이 건강한 구근이다. 개중에는 프리지어, 아네모네, 라넌큘러스처럼 구근 크기가 작아도 꽃 피는데 문제가 없는 구근들도 있다. 이들을 고를 때는 곰팡이나 병 유무에 더 신경쓰며 고르도록 한다.

추식구근의 소독법

수입된 구근은 치명적인 병균이 없어야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구근을 구입한 첫 해에는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하거나, 구근에 썩은 부분이 있거나 곰팡이가 있다면 소독을 하도록 하자. 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집에서 2년 이상 키운 구근을 심을 때이다. 구근을 소독하는 법은 베노밀 200배 희석액에 30분정도 구근을 담가두면 된다. 락스로도 소독이 가능한데 락스 300~500배 희석액에 구근을 역시 30분정도 담가두면 된다. 주의할 점은 구근을 소독할 때는 구근 껍질을 벗기고 소독해야 한다는 점과, 소독을 할 때는 구근을 심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껍질이 벗겨진 구근은 건조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추식구근의 식재법

대부분의 구근류는 구근 높이의 2배 정도로 땅을 파서 심으면 된다.(구근 높이가 3cm라면 6cm깊이로 땅을 파고 심는다) 경기, 강원도 북부같은 추운지방에 구근을 심는다면 구근 높이의 3~4배 정도 깊이로 심어도 된다. 구근을 너무 얇게 심으면 구근이 더위나 추위, 건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좋지 않다. 백합은 예외적으로 깊게 심어야 하는 구근인데 키가 커서 깊게 심는것이 쓰러짐 방지에 좋고,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가 깊게 심어야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백합은 구근높이의 3~5배 사이의 깊이로 심어주면 된다.

추식구근 식재 후 관리법

추식구근은 대부분 추위에 잘 버티는 종류이기 때문에 심어놓고 꽃이 피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만약 구근을 화분에 심었다면 겨울 동안 0~5도 사이로 유지되는 실내로 화분을 옮기는 것이 좋다. 화분은 냉기가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사항 : 아네모네나 라넌큘러스, 프리지어같이 겨울에 싹이 트는 종류들은 겨울동안 햇볕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며 키워야 한다. 이들은 야생에서도 겨울에 자라서 봄에 꽃이 피는 식물이다. 또한 아네모네나 프리지어는 밤 기온 10~15도 사이의 온도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너무 따뜻하게 키우면 웃자라고 꽃눈이 더디게 생기기 때문이다.

봄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독자는 가을을 알차게 보내 봄에 더욱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도록 하자.



콜치쿰 갈라



크로커스



프리지어



콜치쿰



아티초크 Artichoke



글/사진 김신우 기자



아티초크(globe artichoke, *Cynara cardunculus* var. *scolymus*)는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등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며, 또한 우리나라의 무와 같이 많이 식용되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어쩌면 지금의 브로콜리와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제주도에서 재배에 성공하여 호텔 및 레스토랑의 고급요리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아티초크는 보라색의 꽃을 가지는데 그 화려함 때문에 꽃인지 채소인지 분간이 어려울 때가 많다.



아리따운 여인에 반한 제우스가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하자 화가 나서 그 여인을 가시가 많은 풀로 만들어 버렸는데 바로 그 가시 많은 풀이 아티초크이다.

제우스에게 쉽게 허락하지 않았던 아티초크... 그 식용방법도 쉽지 않다. 특히 아티초크가 생소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아티초크의 꽃 봉우리의 끝을 잘라내고 레몬과 같이 20~30분 삶아서 먹는다. 삶아진 아티초크의 잎을 하나씩 떼어 내어 잎사귀 안의 하얀 속살만 지그시 눌러 뽑아먹으면 된다. 때론 뒷편에 소우 찍어서...

이런 특이한 식용방법에도 불구하고 아티초크는 로마시대부터 연회의 별미요리였다고 하니 그 유래가 깊다.



아티초크에는 다른 음식의 맛을 도와주는 특별한 물질이 있는데 바로 석탄산이다. 아티초크 요리시 자른 부위가 빠르게 갈변하는 것과 익히지 않은 아티초크를 먹었을 때의 심한 뎀은 맛 모두 이 석탄산물질 때문이다. 하지만 가열시 두 가지의 특징은 감지되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그 음식에서 단맛이 나게 하는 특이한 효과를 낸다. 아티초크는 항산화 효과 및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며, 신장 및 간기능 개선을 돕는다고 한다.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새로운 음식을 접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천크린아카데미 5기교육

- 3강 텃밭재배와 작목기술 정보 포인트 정리
- 4강 정원은 계절별 작업, 정리를 늘 해주어야 한다
- 5강 국화분재 재배 기술 포인트 정리

제 3강 텃밭재배와 작목기술 정보 포인트 정리

작물 기술 정리를 하나하나 쉽고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작물의 특성을 설명하여 가르칠 때 마다 함성이 튀어나오고, 강의가 이어질수록 더 많은 열정으로 배우고 익히는 이천아카데미 조정대학 5기생 수강생들. 호박꽃이 활짝 피면 호박은 달리지 않습니다. 호박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호박이 꽃망울이지만 약간 비틀어 호박꽃 부분을 아래방향으로 바꿨을 때 호박 열매를 얻는다. 간단한 원리이지만 작물의 특성을 무시하고 물만 열심히 주면 호박꽃을 무성히 키워 열매를 잃는 농부도 많은 것이다. 배움의 길은 계속 이어지고... 열정을 준비한 밭에 가을 파종을 시작하는 교육생들 모종 하나 하나, 이제 늦가을 각자 심은 채 채소 수확할 때 작물의 특성을 알고 심은 모종의 야채는 뿌리를 튼튼히 잘 내리고, 가을날 수확의 기쁨도 기다려본다.

비닐 멀칭은 모두가 경험했을까요?

Q&A의 답변 흰색(투명비닐)은 마늘밭에 사용하고, 검정색은 땅콩밭에 사용하라고 작물의 특성에 따른 멀칭 비닐의 색도 매우 중요하다.

멀칭을 준비한 밭에 가을 파종을 시작하는 교육생들 모종 하나 하나, 이제 늦가을 각자 심은 채채소 수확할 때 작물의 특성을 알고 심은 모종의 야채는 뿌리를 튼튼히 잘 내리고, 가을날 수확의 기쁨도 기다려본다.

임 채소와 뿌리 채소의 사이 사이의 섞어 심기는 식물의 성장에 서로의 성장 역할에 자극을 주며, 채소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늘 임 채소와 뿌리채소는 섞어 심는 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구멍을 내고 모종 하나, 하나에 정성껏 심은 배추와 쪽파심기가 실습으로 이어간다.

5기 수강생이 3조로 나누어 각자 정해진 밭에 농부의 모습으로 8월 중순(음력으로는 넘기지 말고 파종을 끝내야 하는 시기)도 수강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학습 메모이다.



감자, 양파, 오이 등의 저온성 작물과 토양의 종류를 파악한 후 파종을 해야 하는 작물로는 마늘은 석회비료를 좋아하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을 선호하는 작물이다. 이제 고구마도 수확하지만 고온에서 1주일 잘 저장하여 건조시킨 고구마는 당도도 높이며, 쉽게 썩는 상태도 없이 늦은 봄까지도 보관상태가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를 먹을 수 있다.



4강 정원은 계절별 작업, 정리를 늘 해주어야 한다

교육기간 : 2014년 8월 ~ 10월(총3개월 12강)
장 소 : 우리꽃 영농조합(이천시 모가면)



김광두 교수의 서두 강의는 강하고 깊은 한마디로 전체 강의가 이어간다.

"식물의 제일 좋은 거름은 주인의 발자국이다!"

모든 생명체는 항상 정원사나, 농부와 대화를 원한다. 잘 가꾸고 계절마다 깨끗이 잡초를 정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가지를 잘라주면 식물도 고마움의 표시로 정원을 맞이하는 상태가 매우 건강한 모습을 자아낸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식물과 진실히 대화하는가? 이제 초보 정원사도 본인의 발자국을 늘 정원에 찍어 가며 식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민감하게 소리를 들어보는 훈련에 수강생의 교육이 이어진다.



소나무 전정 수업으로 모두 긴장하며 실기 수업에서 실수 없이 시작하는 긴장된 실습 시간이 다가 온다



늘 여성 수강생은 용감하고 진취적이라 높은 사다리에 올라 교육 훈련에도 항상 1등 지원자들이다.

전정 실습 수업을 마치고 조별 수강생들이 각각 나누어 작업한 소나무 밑에 모여 작업후의 소나무의 고마운 소리를 들으며 모두 흐뭇함과 미소로 땀 흘려 배운 전정의 기쁨 뒤에 환한 미소로 나무 아래 쉼을 이어갈 것에 감사함을 전하며 기념사진.

문의전화 : 031-634-7990

5강 국화분재 재배 기술 포인트 정리

질문과 답변으로 정제한 Q&A식 강의는 수강생을 다소뭉치게 만드는 힘찬 강의다.



국화분재의 품종 특성

- ① 미까도(황색) ② 웅백(백색) ③ 백조(백색) ④ 월후사자(적색)
⑤ 나비아가씨(황색) ⑥ 노들(연분홍) ⑦ 소정앵(연분홍)

분재의 수형

- ① 직간(곧은나무) ② 곡간(모양목) ③ 사간(기운나무) ④ 문인목(선비나무)
⑤ 현애(벼랑나무) ⑥ 쌍간(쌍 줄기나무) ⑦ 소품분재 ⑧ 분경 ⑨ 산경

국화분재의 중요 요점

- ① 뿌리 퍼짐을 충분히 한다. ② 어릴 때부터 뿌리의 좋고 나쁨을 가린다.
③ 불필요한 가지라도 서둘러 잘라내고 천천히 잘라준다.
④ 줄기를 가능한 굵게 키우고 묘의 옷자람은 적심과 적아로 방지한다.
⑤ 관수는 건조한 듯 하게 하며 오후 늦게는 하지 않는다.
⑥ 최종적으로 분갈이 할 때는 뿌리를 뜯어서 발육을 좋게 한다.



강사님의 국화분재 설명후 준비된 실습생들의 각각 다른 국화 모종을 선정하여, 각자의 분재를 만들 준비를 하기 위해 분주하다.



각자의 화분이 정리되고 이제 명찰을 달아 성장을 관찰한다.



나란히 조별 작업을 하여 정리한 분재의 초식화본이 자라기를 기다린다.

문의전화 : 031-634-7990

무료특강

Topic: **6차산업 이야기** (산업의 융합화에 따른 퍼플로션)
농업(현)의 위기 / 농업 위기의 해법 / 6차산업 개념 / 사례연구 / 한계와 극복

강의일정 : 2014년 10월 24일(금요일)

시간: 오전 10:30~12:30

장소: 이천그린 아카데미 교육장 /

우리꽃 영농조합-이천시 모가면

유 기준 교수 /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개발 전공)



강사 유기준 교수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개발 전공)

Univ. of Maine(미) Parks, Recreation & Tourism Planning 박사

주요 저서 : 지속 가능한 관광(저서: 공저), 숲길 정비 매뉴얼(저서: 공저), 생태문화 관광의 이해(저서: 공저), 관광개발론(저서: 단독), 관광과 개발(저서: 공저), 웰니스 관광의 이해(저서: 공저) 등

주요 경력 : 한국 환경생태학회 회장 / 환경부 국립생태원 설립추진단 위원

주요 이력 : 2006년 환경부장관표창 / 2009, 2010 환경생태학회 공로상

최근 연구 :

국립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백두대간 7개 국립공원 대상) 2012. 3~ 2013. 2 연구책임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방의료서비스 매개형 힐링리조트 상품개발 2012. 8~2015. 4 연구책임 지식경제부

국립공원 생태체험연수시설 운영활성화 2013. 7~2013. 12 연구책임 국립공원관리공단

문의전화 : 031-634-7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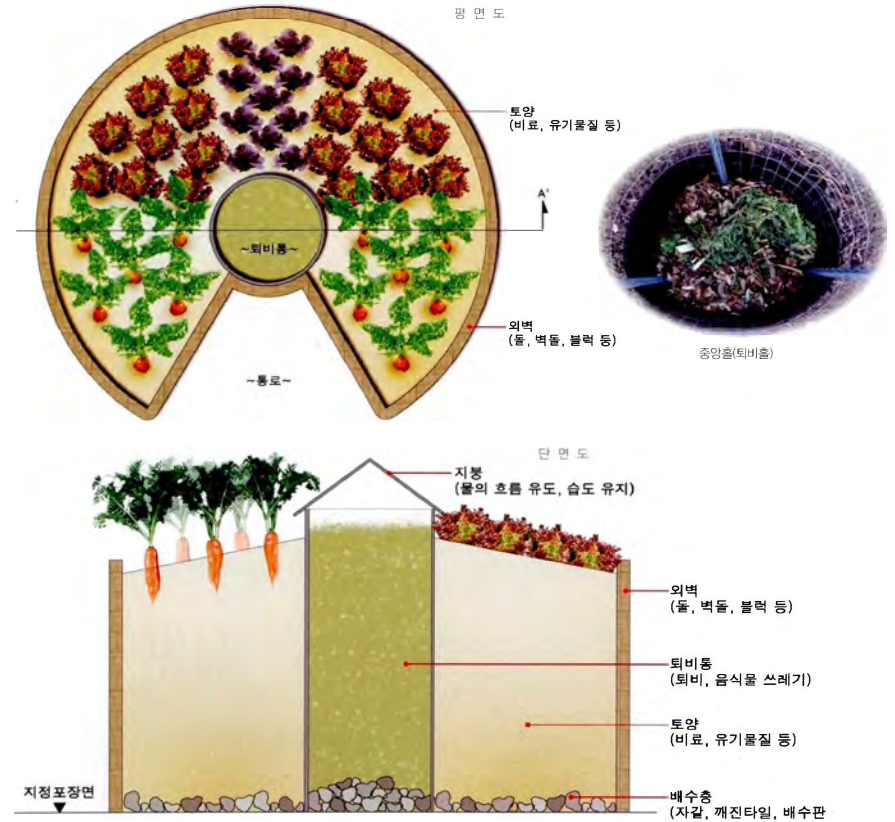
유기농(ORGANIC) KEY HOLE 정원



키홀정원소개

키홀정원을 소개하며, 한국의 정원문화 속에 집 앞마당이나 텃밭 구석에서 모아두고 유기농 정원의 퇴비장(풀, 잡초퇴비)을 만들어 자연유기물의 싹틔움물로 수분을 공급하면 발효와 발열의 효과를 주며, 그 위에 흙 덮기는 마당 쓸고 난 여러가지 유기물과 부엽에서 나오는 자연 쓰레기 등으로 끝내주면, 그 안은 가스와 열을 발생하여, 숙독을 발효시키는 열을 이용 사용하였으며, 발효식품의 저장고로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고구마를 묻어두면 싹이 트는 것을 이용하여 고구마 싹을 만드는 온실 역할도 감당하던 곳이다.

소 외양간의 두입을 쌓고, 밭에 잡초정리를 한 풀초, 돼지우리, 닭장 비료 등등 주변쓰레기 마당 쓰레기를 삼태기에 담아 퇴비장에 부으며, 주방의 싹틔움물과 구정물을 부어주면 곳, 소 외양간의 분뇨와 가정에서 사용한 오강의 분뇨, 인분도 사용.
여름~가을을 거쳐 쌓아두고, 분해되며, 유기물을 발생하여 봄에 퇴비를 사용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유기농 키홀 정원이란?

유기농 키홀 정원에는 퇴비통이 중심에 있으며, 위에서 보면 열쇠 구멍 모양의 정원이 되며, 몇 몇의 층을 형성하여 수분을 유지하고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기존 정원 보다 훨씬 생산적인 것으로 중앙의 퇴비통은 토양의 영양분을 보충하며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준비한 재활용 재료들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정원이다.

유기농 정원의 특징

>>토양의 비옥화

시간이 흐르면서 각 층의 유기물이 퇴비화 되어 토양에 영양분을 주며, 중심의 퇴비통은 지속적으로 토양을 보충한다.

>>인건비 절감 기술

토양 재 양분과 수분 유지는 정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며, 정원 구조는 병약자나 노인층의 정원사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수분 유지

각 층이 수분을 흡수하여, 적은 물로 수분을 남겨두기 위해 적합하다.

>>저렴한 설계

모든 공사 자재는 정원사가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돈을 들이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고, 정원사는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도 할 수도 있다.

>>연작 채소 생산

유기농 키홀 정원의 돌맹이 벽은 태양열을 흡수하여 냉해의 기온으로부터 작물도 보호 한다.

유기농 키홀 정원 만들기

유기농 키홀 정원은, 작물재배를 위한 음식물 혹은 정원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한, 유기농법 재활용 탱크와 같은 작용을 하며, 주변의 환경에서 이용되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한 쉽고 간편한 정원이다.

정원 만들기 필요한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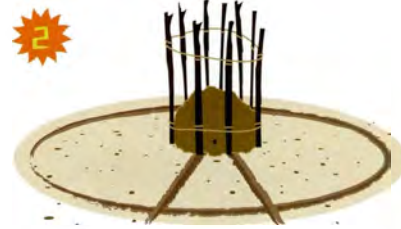
커다란 돌맹이/별돌/나무조각, 막대기 또는 나뭇가지,

노끈, 150cm 정도의 갈대나 갈대 류, 깨진 화분 또는 알루미늄 캔, 선/줄, 제대로 부식된 동물 거름을 포함한 배수가 잘되는 겔흙과 퇴비 혼합물

유기농 키홀 정원 만드는 순서



- ① 직경 2m의 원으로 정리를 하며, 4개의 기둥을 땅에 지지시킨다.
② 정원의 바깥 윤곽을 돌로 표시하고 윤곽이 중심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 ③ 중심 통은 끈으로 둘러싸고 세워서 물이 통에 부어지면 정원의 토양으로 흐를 수 있게 한다.



- ④ 정원의 바닥 1차 밑면 층에는 빈 음식이나 음료 캔 같은 철 부스러기, 알로에 잎, 동물의 마른 뼈, 깨진 정토 그릇(주먹 크기)의 돌맹이로 대체 가능)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재료들은 토양에 무기물을 제공하고 폭우 시 배수 역할을 한다.



- ⑤ 1차 층은 영양소를 주는 흙으로 덮여 있으며, 중심통은 수분을 유지하고, 나뭇재는 칼륨을 공급한다. 모든 층은 통으로부터 언덕지게 하여 물이 흙 속에서 제대로 흐를 수 있게 하며, 흙은 나뭇재 위에 덮여 준다. 흙은 나뭇재 위에 덮여 주며, 혼합된 흙과 마른 거름을 재일 위에 두껍게 덮어 준다. 젖은 거름은 어린 묘목을 죽일 수 있다. 정원의 돌맹이 벽을 더 높게 쌓는다.

- ⑥ 계절에 맞춰서 씨앗을 심으며, 겨울에는 중심통에 오래된 카페트로 식물을 추위로부터 보호한다. 낮에는 식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게 치워 준다.

여러분은 유기농 키홀 정원에서 이제 채소를 일년 내내 식탁의 영양소로 공급을 받으며, 주변 둘레에는 화초를 키우며 좋은 환경도 만나볼 수 있다.

유기농 키홀 정원의 관리법

>>물주기

- 정원에 물을 주기적으로 주어서 흙을 촉촉하게 한다.
- 깨끗한 물은 토양 위에 부어준다.
- 손을 씻거나, 빨래, 또는 그릇 맑은 물은 중심 통에 부어줍니다. 통 안의 태칭그라스와 퇴비는 물을 정화 할 것 입니다.

>>중심부 통

- 요리 하지 않은 채소 조각, 마른 거름, 계란껍질, 그리고 퇴비는 통에 넣으면, 토양에 양분이 된다.
- 중앙의 통이 1~2년 안에 분해가 되면 교체할 하며, 오래된 통은 교체할 수 있다.

>>토양관리

- 마른 비료와 같음은 정원에 보충하여서 비옥함이 줄어들지 않게 합니다.

유기농 키홀 정원의 보수 관리

- 오랜 시간 경과 후 정원의 영양소가 소멸되어서 채소의 성장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다시 보수 관리하며, 일반적으로 4~5년 정도 유지한다.

유기농 키홀 정원에 심기

공간, 흙의 영양분, 그리고 해충 관리의 정원 설계에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찍어 짓기는 작물의 최상의 조건을 충족 위해 정원에 심는 방법입니다. 이파리 식물을 뿌리 식물 옆에 심거나 해충 억제 채소(양파 또는 마늘 류)를 일반 작물 옆에 심는 것 등이 있습니다. 비옥함을 유지하고 해충을 방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4가지 종류 이하로 채소를 심는 것 입니다.



세기사를 바꾼 식물병 감자 역병



글 사진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차병진

먹이사각형 피라미드

최근에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 여파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까지도 전달되어 감염될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국제행사에 아프리카 사람들의 참석을 제한하여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참 우습지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우주를 개발한다고 달나라도 제 집 드나들 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을 창조할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고 뼈대는 사람들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뼈대와 오장육부는 물론 심지어는 먹는 입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미생물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사진1. 먹이사각형(피라미드). 위로 갈수록 개체 수는 적어진다.

그렇지요, 생태계의 먹이순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흔히들 먹이사각형(사진 1)을 떠올리며, 그 정점에 사람이란 존재가 있으니 사람보다 강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먹이사각형의 의미는 생물의 서열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이습성에 따른 구성 비율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초식동물의 수는 많고 육식동물의 수는 적다는 그런 것 말입니다. 먹이습성을 가지고 생물의 강약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모든 생물이 똑같이 강하다고 생각

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물은 모두가 먹고 먹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사진 2).



사진2. 생태계 먹이사슬. 모든 생물은 절대 강자 없이 꼬리를 물고 먹고 먹히는 관계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감합니다. 약한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모두 도태되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종이나 칼, 심지어는 핵무기를 가지고도 죽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생물 중 상당수가 다른 생물에 병을 일으키며 사는 병원미생물들이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식물병원미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식물에 병을 일으켜서 품질을 떨어뜨린다든지 수확량을 감소시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러한 예는 무수히 많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일으켰던 식물병이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황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감자 역병'(사진 3)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감자 역병은 1800년대 중반, 당시 감자를 주식으로 하던 아일랜드에 대발생하여 약 150만 명이 굶어 죽었고, 또 다른 150만 명 정도는 고향과 고국을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 줄지에 아일랜드 인구를 절반 정도로 줄여버린 무서운 병입니다.



사진3.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식물병인 감자 역병.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아일랜드 농민은 매우 가난하여 창문도 없는 작은 단칸방 오두막에 살면서 영국인 부재자주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산출량도 많지 않았지만 쫓겨나지 않기 위하여 그 대부분을 과도한 소작료로 지불하고 자신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서늘하고 습한 아일랜드의 기후가 감자 생산에 매우 적당하였으며, 감자는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으로 여겨 지주들이 빼앗아 가지 않았고, 또 지상부에 돌아다니는 해충들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농민들은 굶주림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고, 생계와 생존을 감자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45년 경 북유럽과 아일랜드의 날씨가 흐리고 습해지며 서늘해지더니, 이러한 상태가 몇 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 잘 자라고 있던 감자의 잎과 줄기가 마르기 시작하더니(사진 4), 식물체 전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 불과 몇 주 안에 북유럽과 아일랜드의 감자밭이 온통 마르고 썩은 식물들로 어지러워 졌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땅 속에 있던 감자들을 마저 썩었으며(사진 5), 수확할 때는 관창아 보였던 감자들까지도 조금만 지나면 썩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듬해에도 날씨는 습하고 서늘하여 또 다시 감자 역병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농민들은 또 다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4. 감자의 잎과 줄기에 나타나는 역병 병징.

이렇게 감자 역병으로 시작된 흉년이 영국과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대기근으로 발전하였고, 거기에 보태어 이질과 티푸스 같은 전염병들이 돌며 농촌과 도시빈민층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수는 결국 몇 년 만에 150만 명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은 수가 일자리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는 바람에 아일랜드의 인구는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여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들이 미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미국 정계의 명문가인 케네디 집안도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아일랜드로부터 이주해 와서 일꾼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감자 역병이 없었다면 케네디가 미국에 왔을 리도 없고, 그러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 이야기를 꾸며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진5. 역병에 감염되어 썩어버린 감자 괴경.

감자 역병은 식물병리학자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아직도 사람들의 과학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이 병이 나타난다든지, 발을 가로 지르며 달리는 기차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벌을 내리는 것이라든지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식물병리학자들이 끊임 없이 연구를 계속하여 이 병이 곰팡이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결국에는 그 방제법까지 알아내었습니다.

이 병은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병이 높은 온도와 습도를 좋아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병은 높은 습도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규모로 심하게 발생하였던 경우는 없지만, 지리적으로 서늘한 지역, 즉 강원도 대관령 등지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병입니다.

감자 역병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제하는 약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산, 유통되고 있습니다.



Gardenin TIP 가든인 TIP 독자들이 만드는 Q & A

답변 : 차병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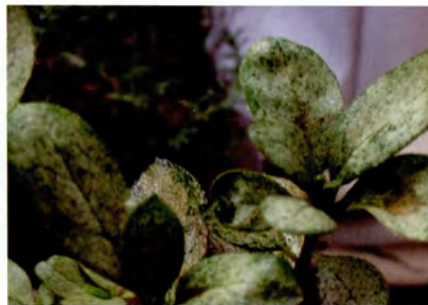
1. 사진의 증상

보내주신 사진은 전형적인 진달래방패벌레의 피해증상입니다. 철쭉 응애에 의한 피해도 이와 매우 비슷하여 잎의 앞면만 보고는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잎의 뒷면을 보면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달래방패벌레에 의한 피해는 잎의 뒷면에 작고 검은 점 같은 것이 많이 생기는 반면, 철쭉응애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러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검은 점들은 진달래방패벌레의 배설물입니다.

진달래방패벌레는 사진을 보내주셨듯이 철쭉류를 비롯하여 진달래, 영산홍, 사과나무 등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따라 극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벌레는 주로 잎의 뒷면에 모여 살면서 즙을 빨아 먹기 때문에 잎 뒷면을 자세히 보면 약충이나 성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충의 크기는 약 4mm 정도이며 회백색의 방패모양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개는 투명하고 시맥이 뚜렷이 보입니다.

피해를 받은 잎사귀들이 허영게 보이는 것은 이 벌레가 즙을 빨아먹을 때 염록소까지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광합성량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활력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벌레는 한 해에 4~5회 정도 발생하는데, 겨울에는 낙엽이나 지피물 등에서 성충 상태로 월동할 수 있습니다.

이 벌레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최근에는 효과가 좋은 살충제들도 다수 개발되어 시판 중입니다. 진달래방패벌레의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페니트로톤 유제나 다이아지논 유제 또는 아세페이트 수화제 등을 사용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시면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습니다.



2. 살균제와 살충제의 살포방법?

- 1) 살균제와 살충제는 주기적으로 번갈아 살포하나요?
- 2) 살충제 살포 후 몇일후 살균제 살포가 적당하나요?
- 3) 살균과 살충을 번갈아 뿌려야 하는지요?

제가 작물보호제, 즉 농약에 대하여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작 이러한 내용들은 빠뜨린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이 질문들은 모두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식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입장에서 약제들을 따로 따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처리하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물보호제들은 모두 다 화합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화합물들은 경우에 따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작물보호제도 섞어서 사용(혼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종류의 작물보호제, 즉 살균제끼리도 섞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섞어쓰기(혼용)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용기에 모두 넣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응이 일어나 약효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제간의 간섭이 일어나면 약효가 감소하기도 하고, 반면에 상승작용이 일어난다면 독성이 강해져서 약효는 둘째 치고, 식물에 약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약제에 대하여 섞어쓰기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혼용가능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작물보호협회(<http://www.koreacpa.org>)의 '농약 혼용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섞어쓰기가 가능한 약제들이라면 각각 처리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조제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약제들끼리는 일단 한 약제를 처리한 이후 2~3일 정도 뒤에 다른 약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달아 사용할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하거나 약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균제와 살충제를 번갈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살균제는 병이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클 때만 사용하시면 되고, 살충제는 마찬가지로 해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클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두 약제를 번갈아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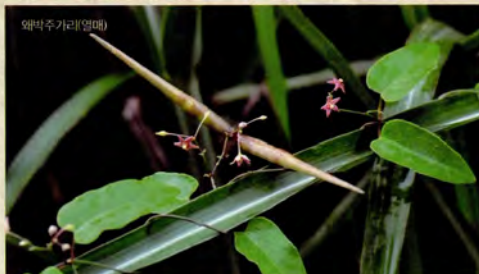
불가사리 모양으로 생긴

박주가리의 꽃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박주가리 *Metaplexis japonica*



불가사리 모양으로 생긴 박주가리의 꽃

꽃은 통꽃으로 옅은 보라색 또는 흰색을 띠며 7~8월 사이에 잎겨드랑이에서 총상(總狀)꽃차례를 이루어 피는데, 5갈래로 깊게 갈라진 꽃부리 안쪽에는 연한 흰 털이 촘촘하게 나 있다. 꽃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마치 별 모양 또는 불가사리 모양으로 생겼다.

식물체의 특징

박주가리는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식물이다. 산과 들에서 자라며 줄기는 3m가량 된다. 줄기와 잎을 자르면 하얀 젖 같은 유액이 나온다. 잎은 마주나며 잎끝은 뾰족하나 잎 밑은 움푹 들어가 있다. 잎가장자리는 밋밋하며 잎자루가 길다.

박주가리의 용도

봄에 어린줄기와 잎을 따서 삶은 다음 나물로 먹으며, 한방에서는 가을에 열매를 따서 말린 것을 나마자(蘿摩子)라고 해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데 쓴다. 잎에서 즙을 내어 종기에, 혹은 뱀이나 벌레에 물린 데 바르기도 한다. 종자에 달린 털은 도장갑 또는 바늘뿔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표주박처럼 생긴 넓은 피침형의 열매

열매는 표주박처럼 생긴 넓은 피침형이며 길이 10cm로서 겉에 사마귀 같은 돌기가 있고, 종자는 평편한 도란형이며 길이 6~8mm로서 흰 명주실 같은 솜털이 깃털처럼 달려 있어 바람에 잘 날린다. 길쭉하고 끝이 뾰족한 열매는 9월에 볼 수 있지만, 열매가 세로로 갈라져서 목화의 흰 솜털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10월에 볼 수 있다.

박주가리 종류들의 분류

식물 이름에 "박주가리"라는 명칭이 들어있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지만, 이런 이름을 가진 덩굴식물도 꽤 여러 종이 있다. 가장 흔한 종류로는 전국 아무데서나 흔히 자라는 자주색과 흰색 꽃의 박주가리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덩굴박주가리와 왜박주가리,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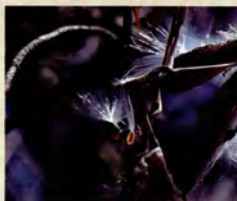
가는털백미꽃(열매)



덩굴박주가리(열매)



가는털백미꽃



가는털백미꽃



가는털백미꽃



가는털백미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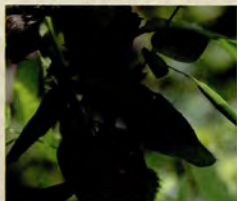
덩굴박주가리(갈색)



덩굴박주가리(갈색)



덩굴박주가리(녹색)



덩굴박주가리(갈색)



세포큰조롱(접사)



큰조롱(근접)



세포큰조롱



큰조롱(열매)



왜박주가리



큰조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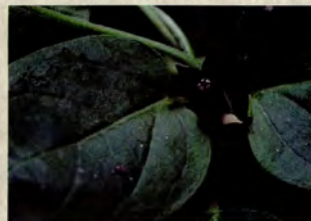
왜박주가리(열매)



흑박주가리(열매)



왜박주가리



흑박주가리

흑박주가리가 있으며, 이와 특징이 아주 유사한 큰조롱, 세포큰조롱, 가는털백미꽃 등이 있는 편이다.

박주가리과의 공통 특징

꽃과 잎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박주가리과의 공통 특징은 바로 열매의 모습이다. 종류를 불문하고 열매는 모두 길쭉하고 끝이 뾰족하게 생긴 것이 특징이다. 익으면 모두 과피가 터지면서 속에 있는 종자가 갇털을 달고 바람에 날아가 적당한 장소에 자리를 잡는다. 식물은 자기의 후손이 한 군데에 모여 사는 걸 원치 않고, 넓은 영역에 고루 퍼져 자라는 걸 원하기 때문에 갇털이나 날개를 종자에 붙여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하는 독특한 습성을 지닌다.

각 종류들의 세부 특징

박주가리 다음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꽃은 왜박주가리인데, 왜박주가리의 가장 큰 특징은 꽃이 흑자색이고 꽃차례가 많이 갈라져 있는데, 잎보다 위로 높게 올라와서 아주 작은 꽃이 핀다는 것이 특징이다. 제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덩굴박주가리와 흑박주가리인데, 덩굴박주가리의 꽃은 녹색으로 피는 것과 흑자색으로 피는 것이 있는데, 꽃자루가 짧아서 잎겨드랑이에 바짝 붙어서 달리는 것은 모두 덩굴박주가리이다. 흑박주가리는 처음에 줄기가 가늘고 꽃꽂게 서서 자라다가 나중에는 약간 덩굴성을 이루는 게 보통이고, 덩굴박주가리는 처음부터 줄기가 덩굴을 이루면서 다른 물체를 감아오르는 것이 보통이다. 덩굴박주가리의 꽃이 흑자색으로 필 때는 흑박주가리와 구별이 좀처럼 어려운 편인데, 흑박주가리는 잎의 질이 다소 두껍고 덩굴박주가리보다 둥글고 넓은 것으로 구별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 흑박주가리는 부화관이 난상 8각형으로서 암술이나 수술대보다 약간 짧은 편이며, 덩굴박주가리는 부화관이 암술이나 수술대 길이에 비해 1/2정도에 머무르는 편이다.



Thuja orientalis

천연기념물 제1호 대구 도동 측백나무림

야생의 상태로 남아 있는 측백나무의 천연생태 보고서

대구에 사는 사람들도 대구에 한국 천연기념물 제1호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대구 도동산 180번지에 위치한 측백나무림이다. 측백나무림은 경북 영양과 충북 단양 등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있지만 그 규모와 보존의 상태에 있어서 가장 천연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꼽는 곳이 도동의 측백나무림이다.

글 / 사진 김 지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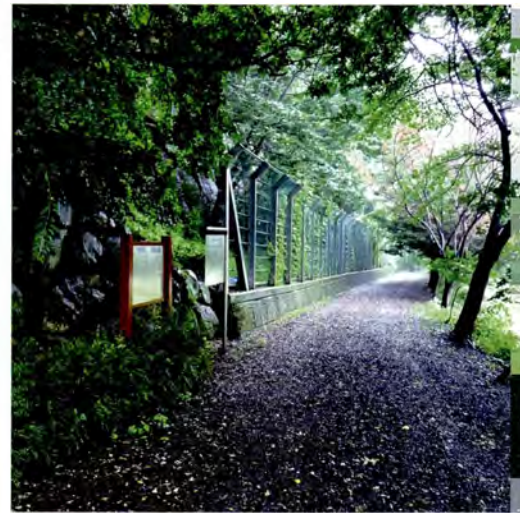
측백나무는 공원이나 도로변 조경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다. 약효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무라기 보다는 약재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게 현실이다. 약재로 쓰기 위해 야생상태의 측백나무들이 많이 벌목이 됐고 현재 천연의 측백나무림은 매우 빈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인간의 욕심이 천연의 자연유산을 훼손한 것이다. 당국에서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 측백나무림을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보존가치가 큰 곳이 대구 도동 측백나무림이다.

야생의 상태에서 수백년의 명목을 이어오고 있는 천연 측백나무림의 고아한 자태를 만나보기로 한다. 현재는 훼손을 막고 자연상태로의 복원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로천변의 산책로를 따라 절벽에서 자라고 있는 측백나무들을 멀리서 바라보기만해도 고아한 자태와 풍취를 즐길 수 있다.



풍류객들의 쉼터가 되기도 했던 북벽향림

대구 도동 측백나무림은 조선 초기의 학자 서거정(1420~1488) 선생이 열거한 대구의 비경 10경 중 제6경에 해당하는 곳으로 북벽향림(北壁香林)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불로천의 상류지역에 있는 해발 160m의 향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측백나무들은 높이 100m, 길이 600m에 이르는 절벽에 자생하고 있다. 옛날에는 숲도 훨씬 울창했고 절벽 앞 개울물도 더 깊고 푸르러서 문인들과 풍류객들이 자주 찾았다고 한다. 특히 이 지역은 대구에서 영천, 경주로 가는 길목이어서 길손들의 숨터가 되기도 했다.

이 곳이 천연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해는 1962년이다. 선정할 당시 측백나무가 집단으로 자라는 곳으로는 가장 남쪽이며, 옛날에는 묘지의 돌레나무로 심는 등 측백나무 쓰임의 귀중함을 감안하여 제1호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한다.

현재 1,200여 그루의 측백나무가 굴참나무, 느티나무, 굴피나무, 물푸레나무 등과 같이 섞여 자라고 있다. 그 중 일부는 나이가 수백 년에 이르기도 한다. 흙 한 점 제대로 없는 바위 틈에서 긴 세월 등

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천연자연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원산으로 자생력이 뛰어난 수목

‘측백(側柏)’은 우리나라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항상 푸른 ‘상록바늘잎나무’로 떨기나무 또는 큰 키 나무로 자라난다.

대구 도동의 측백나무림은 측백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남쪽 한계를 나타내므로 식물지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자연생은 대부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낭떠러지에만 남아 있다. 또한 숲 아래 바위 틈에는 일본학자가 여기서 처음 발견하여 새로운 변종으로 이름붙인 ‘구와꼬리풀’이 자라고 있다.

처음 지정될 당시에는 나이 100년이 넘고 밑둘레 20cm, 높이 10m에 이르는 거목들도 수천 그루 모여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높이 5~6m 정도 되는 100여 그루의 측백나무들이 잡목들과 함께 섞여 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산 주민들 말로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리울 정도로 다양한 효능이 있어서 초기에는 마구 벌목을 해 가는 폐단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측백나무림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고 천연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공개제한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이 곳은 보존 및 학술 목적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귀중한 야생 측백나무림이 잘 보존된다면 앞으로 7년여 후에는 측백나무림에

들어가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 70년, 700년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모두가 보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과목 측백나무과 측백나무속 *Cupressaceae Thuja*

측백나무과에는 측백나무속, 편백나무속, 향나무속이 있고 단일종으로 나한백이 있다. 한국에서 자생하는 것은 향나무와 측백나무, 눈측백나무이다. 잎은 비늘잎이거나 바늘잎이고 구과 모양의 열매를 맺는다. 측백나무 중 가장 높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눈측백이다. 누워서 자란다고 눈측백이라 불리는데 주로 설악산 고산지대에서 볼 수 있다. 중부 온대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보이는 수종이 측백나무로 불린다. 공원 등에서 볼 수 있는 조경용 측백나무는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온 품종들이다. 측백나무는 실편이 두껍고 종자에 날개가 없으며 가지는 수직으로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

도움말 출처 <나무와 숲> 한길사 간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개원



<http://www.kna.go.kr>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중앙선 복선전철 용문역 뒷편에 희귀·특산식물이 복원된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문을 연 이 시설은 국립 수목원이 지난 지난 2001년부터 해외 36개 관련 기관들과 연구 및 협력 등을 통해 확보한 학술 가치 및 자원 잠재력이 높은 식물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증식 및 활용을 위해 탄생됐다.

유용식물증식센터는 '산림식물자원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이루고자 고부가 품종소재개발과 안정적인 대량 증식기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산하연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일지사를 창출하며 더 나아가서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외 탐사를 통한 식물 수집과 희귀·특산식물의 현지내·외 보전복원을 위한 증식개체 확보와 전지원조성 식물소재 발굴 등 산림식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유용식물증식센터는 안정적인 국제적인 대량증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



대별 식물자원온실 4동과 형질특성평가실, 조직배양실, 환경적응실험실, 식물자원 보존 포지를 갖추고 있다.



온실은 모든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환경 조절실과 식물의 분류에 따라 6 개소로 운영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환경조절실(환경조절실험실, 순화실, 후숙실, 작업실, 자재보관실) 396
- 제1온실(아열대 산림식물자원실) 396㎡
- 제2온실(산림식물 대량증식실) 396㎡
- 제3온실(온대 산림식물증식실) 132㎡
- 제4온실(형질특성 평가실) 396㎡
- 제5-6온실(난대 산림식물 증식실) 792㎡

포지도 식물의 분류에 따라 식재가 되어 있으며 외국의 식물원 못지 않게 식물 분류가 잘 되어있다.

- 제1포지 1,500㎡
- 제2포지 6,000㎡
- 제3,4포지 6,000㎡
- 제5포지 6,000㎡

보유식물현황

제1온실 : 아열대 산림자원실, 열대난초 보존 및 복원 식물 증식: 500종류
제2온실 : 산림식물 대량증식실, 초본류 보존 및 증식 : 1,000종류로 희귀·특산식물 증식실과 큰바위솔, 섬현삼, 개병풍, 큰조롱 등

제3온실 : 온대 산림식물 증식실, 온대식물 증식 : 200종류 - 털버위, 비비추, 백량금, 석위 등

제4온실 : 형질특성 평가실 - 관상용, 식용, 약용, 관상용 특성평가실

제5~6온실 : 난대 산림식물 증식실, 난대식물 보존 및 증식 500종류-황근, 머귀나무, 녹나무, 주름제비란 등

1~5포지 : 국내·외 산림식물자원 보존 및 증식 포지

• 국내 산림식물자원 보존 및 증식 포지 (288종류)

Sedum, Lilium, Allium, Codonopsi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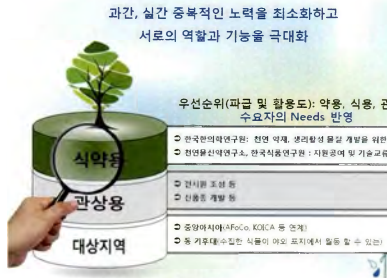
• 국외 산림식물자원 보존 및 증식 포지(1,213종류)

Iris, Hemerocallis, Sisyrinchium 등

주요업무 및 기능

우리나라 희귀·특산식물 복원을 위한 유·무성 대량 생산기술 개발, 국내의 식물자원 증식 및 특성평가 등을 통한 신품종 소재식물 발굴, 야생화 소재식물 발굴·증식 및 재배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화 지원, 보유 식물자원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학·연 연구생태계 구축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연구내용으로는 유용식물 연구실에서는 산림식물자원의 유용성 검증 및 발굴, 식용,약용을 위한 기초 생리활성 물질 탐색 및 활용성 증대를 위한 특성 DB 및 소재은행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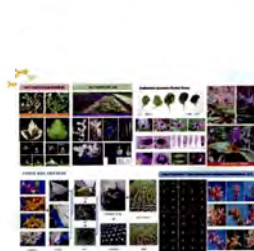


활용 계획으로는

- 우수 유용식물자원 발굴 조사·수집 및 발굴
- 산·학·연 기초재료 제공
- 유용식물자원 보존 및 보급을 통한 국가 생물자원 경쟁력 확보
- 대량증식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신 성장동력 창출
- 전사원 조성, 희귀·특산식물의 보존 및 복원에 활용



증식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또 하나의 생명과학공학 증식센터로서 선진국과 겨루는 연구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유용식물 증식센터의 연구원들의 의지가 세계 정상에 서는 날을 곧 볼 수 있을 것이다. 증식센터의 고사율은 거의 0%라는 초빙 연구원 이종석 박사의 답변과 아울러 30여 년간의 연구하신 식물 품종들을 3개 동의 온실 분량과 이곳 저곳에 흩어져있는 식물들의 수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 연구 업적을 후배를 위하여, 국가의 종자 산업을 위해 박사의 개인 소장 식물들을 기증하였다. 올해 오픈 하였지만 식물 가족들로 이미 가득 찬 연구동 온실을 구경하며 더 많은 기증자가 있도록 바램을 한다.





숲에서 놀 줄 아는 청년이 숲을 지킨다!

숲의 '전래놀이'를 주말, 숲에서 놀이로 만들어가다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학점에, 취업에, 사회에 나가서도 여전히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오늘의 청년들. 그런 청년들에게 함께 ‘어울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숲에서 실컷 놀며 함께 어울리는 그림을 기대하며 청년들이 한 데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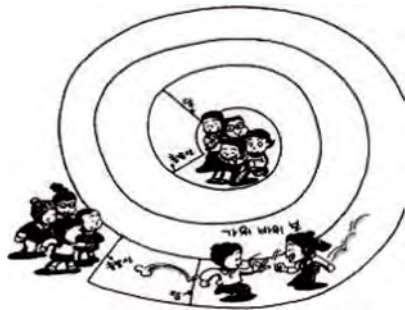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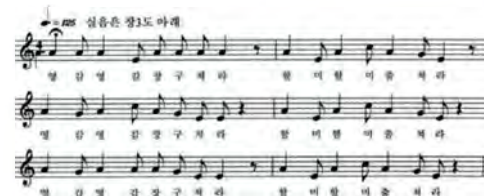
지난 7월 26일 토요일, 장맛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청어가 서대문 안산 공원에 청년들을 불러 모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인 청년들 사이에는 첫 만남의 어색함이 역력했다. 하지만 청년들의 열정은 장맛비도 막을 수 없었다. 숲에서 ‘전래놀이’하며 놀자는 말에 굶은 날씨에도 발걸음을 한 것이었다. 열정 가득한 청년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술래잡기, 공기 놀이, 말뚝박기 등 전래놀이를 하며 시간가는 줄 몰라 어스름 해질녘에 부랴부랴 집에 들어갔던 기억은 혹시 없었을까.



아침 10시, 본격적인 놀이를 시작하기 전 안산 방죽까지 걸으며 몸을 풀었다고나 할까. 가벼운 산책을 하며 청년들은 서서히 숲을 만나고 마음을 열었다. 빨강, 초록, 하얀색 우의를 입고 방죽을 둘러보면서 꿈꿨던 동심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다.



달팽이놀이노래



“달팽이놀이” “종드르기놀이” & “다람쥐놀이”

10시 30분, 전래놀이 강사 김희남 선생님의 주도로 청년들은 서로 완전히 무장해제했다. 재미난 노래와 함께 가위 바위 보로 팀을 나눈 청년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눈과 귀를 집중했다. 나뭇가지를 주워 모래바닥에 달팽이를 그리고 빙글빙글 신나게 달렸다. 이름하여 ‘달팽이 놀이.’ 다음으로는 나무 다람쥐, 빨강 다람쥐, 사람 다람쥐 등 모두 다른 다람쥐가 되어 서로가 은신처가 될 수 있는 놀이를 했다.

아침 10시, 본격적인 놀이를 시작하기 전 안산 방죽까지 걸으며 몸을 풀었다고나 할까. 가벼운 산책을 하며 청년들은 서서히 숲을 만나고 마음을 열었다. 빨강, 초록, 하얀색 우의를 입고 방죽을 둘러보면서 꿈꿨던 동심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다.

달팽이집 놀이(돌아잡기)- 달팽이가진 형부

1. 패를 나눈다(모듬 대항으로 하거나 분단 대항, 남녀 대항 등 어느 방법으로 해도 좋으나 한 놀이판에 30명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2. 두 사람이 설 수 있는 정도의 너비로 달팽이 모양의 그림을 그린다. 5개 정도의 원이면 적당하다.(각각의 출발선에서 1m정도 앞에 담을 끈다)
3. 가위바위보로 이긴 패와 진 패로 나누어 이긴 패는 바깥쪽에 서 안쪽으로, 진 패는 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길을 따라 출발한다.
4. 달팽이가 나가 대편을 만나면 가위바위보를 한다.
5. 가위바위보에 진 사람은 처음 자기 패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온다.
6. 끝까지 먼저 가는 편이 이긴다.



나무 다람쥐에게는 옆에 있던 빛나무가, 사람 다람쥐에게는 옆에 서 있는 청년이 은신처가 되었다. 한 시간 넘게 쉬지 않고 뛰어다녔는데도 청년들은 지친 기색이 없었다. '종드리기'라는 놀이에서는 계기를 차면서 계속되는 헛발질이 여기저기 보였다. 지금까지 계기를 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청년들도 더러 있을 만큼, 전래놀이는 생소했지만 청년들이 어우러지는 데엔 아주 좋은 도구가 되었다.



정성껏 준비한 주먹밥을 함께 나누며,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놀이가 마무리되자, 다들 갑자기 느껴지는 출출함에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를 알아챘다. 놀이를 마치고 정자 안으로 청년들이 웅기종기 들어왔을 즈음, 하늘은 꼭 참고 있던 비를 쏟아하고 쏟아내었다. 청어에서 준비한 직접 만든 주먹밥이 빛을 발했고, 주먹밥을 먹으며 청년들은 어울림 소감을 나눴다.

청어 '숲에서 전래놀이를 하며 '청'년들과 함께 '어'울린 것이 처음이었다'는 전래놀이 강사 김희남님은 "보통 숲문화 프로그램은 나와 같은 중년의 기획자가 중년 층이나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청어의 7월 어울림 행사는 청년들이 청년들을 위하여 준비했고, 청년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이 아주 신선하고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숲에서 어떻게 놀까, 비가 오는데 청년들이 모일까 마음 졸였던 청어의 고민은 청년들의 밝은 표정과 더 높고 싶다는 양코르요청에 씻은 듯이 사라졌다. 청년들의 어린 시절 동심을 찾자, 숲에서 뛰어놀며 일상 스트레스를 풀자, 지역·학교·분야 등 서로 다른 청년들이 숲에서 같이 어울려보자, 결국엔 숲을 사랑하자는 소망으로 마련한 7월 어울림, '숲, 그리고 전래놀이'였다.



청어 2014 하반기 프로그램 일정

장 소 : 각 일정별 참조
모 임 : 무료참가 - 오전 10시경(2~3시간 소요시간)
접수방법 : 개인별, 가족단위, 단체별 - 2주전 신청접수가능
(단체 인원의 준비 관계로)

9월 12~27일 한강 놀이대장 양성과정
(생태놀이, 전래놀이, 공동체 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익히고 한강에서 어린이와 함께 놀아볼 한강 놀이계의 우두머리를 모아본다)

27일(토) 안산초록숲길 <청년 숲과 어울리다> 자연예술
(9월 어울림, 자연미술과 자연놀이로 만나는 숲)

10월 9일 (목) 한강캔즈<놀이대장과 한강에서 놀다>
(서대문구 안산에 놀이대장들이 모여 신나는 놀이장을 펼친다)

25일 (토) 안산 초록숲길 <청년 숲과 어울리다>
(10월 어울림, 느리게 걷고 보고 느끼며 숲과 하나 되기)

11월 1일 (토) 안산초록숲길 <안산 숲 박람회>
(엄마랑 아빠랑 숲에서 놀자)
1일 (토) 초록숲 길 캠페인

25일 (토) 안산초록숲길 <청년 숲과 어울리다>
(겨울을 준비하는 숲 들여다보기)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rdenin TIP 가든인 Tip

돌을 이용한 최고의 놀이 '비석치기'

옛 고을 곳곳에는 비선거리라는 곳이 있었다. 지금도 비선거리 또는 비석거리로 알려진 지명이 꽤 있다. 전통시대에 세도가들이 그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각종 송덕비를 세워 논 거리를 비선거리로 일컬었는데 비석들은 마을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길거리에 세워졌다. 그러나 그 비석들은 대개가 농민들의 뜻에 의해 세워졌다기보다 몇몇 권력층의 과시욕으로 세워진 것이 많았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비석에 대고 욕설을 하거나 발길질로 비석을 차면서 평소 쌓인 울분을 폭발시켰다고 한다. 이런 비석치기가 점차 놀이화되어 어린이들의 비석치기 놀이로 전래되어 왔다고 한다.

비석치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졌는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매장되고 사라져 이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 있다. 놀이방법은 먼저 넓적하고 약간 긴 돌이 사람 수만큼 필요하다. 요즘에는 돌 구하기가 힘들니 목공소에서 나온 자투리 나뭇조각을 다듬어 쓰면 좋겠다. 야외라면 대어섯 발 정도 거리를 두고 금을 앞뒤로 긋고 실내라면 색깔 종이테이프를 붙여서 표시한다. 편을 나누어 진 편에서는 앞 선에 일렬로 비석을 세우고 이긴 편은 일렬로 서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 첫 번째 과정을 진행한다. 쓰러뜨리지 못한 사람은 죽게 되어 뒤로 빠지고 쓰러뜨린 사람은 자기 편 다른 사람이 실패한 비석을 연달아서 모두 쓰러뜨리면 그 다음 순서로 나아가며 먼저 맨 마지막까지 완수한 편이 이기는 놀이다



사방치기



넓은 들이나 한길에 여러 모양의 그림(발)을 그려 놓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돌을 차며 가거나 또는 주워 던지며 노는 어린이 놀이다.

중부 이남 지방에서는 돌치기, 평안도에서는 망치기, 함경도에서는 마우차기라고 부르며, 서울에서는 오랫말 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들은 놀이에 쓰는 돌을 망, 마우, 또는 말이라고 하는 데서 온 것이다.

놀이방법

놀이판(그려 놓은 모양)에 따라 노는 방법이 다양하며, 두 세 사람이 하거나 편을 갈라 한다. 놀이할 어린이 각 자가 편편하고 차기가 좋은 네모꼴 모양의 돌을 마련한다.

준비한 돌을 가지고 그려 놓은 모양에 따라 한 칸 선을 밟지 않고 양감질로 차가는 놀이로 놀이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양감질로 뛰어 다녀야 한다. 던졌을 때나 찬돌이 그어 놓은 선에 닿게 되면 실격이 되고, 또 선을 밟아도 안된다. 그러므로 칸 속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돌을 던져야 한다.

투호놀이

중국 당나라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건너와 고구려, 백제 때 궁중 상류사회 사람들이 즐겼던 놀이로 옛날 양반 부녀자들이 주로 놀았던 놀이

놀이기구 : - 화살 (우산살이나 대나무,나무막대 등), 길이 60cm 정도 되는 통(항아리,강통), 받침대

놀이방법

1. 개인, 팀을 편성하고 놀이 기구를 배치하여 청백으로 나눔
2. 화살을 청백 팀 별로 색깔을 구별하여 각자 2개씩 나눔
3. 병이 놓인 곳에서 1~2m정도 떨어진 곳에 선것
4. '준비' 하면 선 상에 서서 화살을 던질 준비를 하고, '시작' 하면 병 구멍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화살을 차례대로 던짐
5. 병 구멍 속에 꽂힌 화살 수를 가려 많이 꽂힌 팀이 이김





텃밭정원 가이드북

저자 오도 사진 김사용

'텃밭정원'은 뭘 말하는 걸까?

충남 홍성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생태농업 전공과정에서 원예 수업을 하는 저자가 10년 간의 경험과 텃밭가꾸기 과정들을 감무리해 내놓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처음 해보는 텃밭정원, 어렸이 함께 만드는 텃밭정원, 도심 어린이집 벽을 따라 만드는 텃밭정원, 걸어다니는 텃밭정원까지 텃밭정원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사진과 함께 그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런데 텃밭은 텃밭이고, 정원은 정원이지 '텃밭정원'은 뭘 말하는 걸까?

저자는 먹기 위해 기르는 채소와 보는 즐거움을 위해 가꾸는 꽃을 함께 심었다면 그 곳이 바로 '텃밭정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산업화 이전 시골집 둘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급 위주의 소농 중심이었던 전통농업에서 한정된 땅에 작물의 특성을 살려 서로 섞어 심었던(혼작) 지혜를 다시 배워야 할 때라고 결단한다.

이 책에는 텃밭정원에 심을 모종을 키우는 과정과 밭에 아주심기까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텃밭정원의 가장 기본인 흙 만 들기와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 만드는 법, 텃밭정원에서 피할 수 없는 무법자들(해충)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쇠뜨기풀로 만드는 자연농약으로 무법자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아울러 채소마다 각기 다른 특성에 따라 씨앗을 받는 방법도 저자의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잘만 활용하면 텃밭을 잘 가꾸는 방법에서부터 채소와 꽃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그야말로 '텃밭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한편 저자는 유럽에서는 채소정원(Vegetable Garden)이 보편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텃밭정원이라는 개념이 아직 생소한 상황에서 영국의 다양한 채소정원들은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한 힘이 됐다고 고백한다.

이 책은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는 사람들 중 자신의 먹을거리를 자급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1장 텃밭정원이란

텃밭정원 준비하기

텃밭정원 만들기 -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텃밭정원 / 더불어 함께 만드는 텃밭정원 / 벽돌로 만드는 텃밭정원 / 도심 속 텃밭정원 / 걸 어다니는 텃밭정원 / 먹을 수 있는 꽃정원

2장 텃밭정원 유기재배

섞어짓기 / 돌려짓기 / 흙 / 모종 키우기 / 모종 옮겨심기 / 밭에 아주심기 / 두둑 만들기 / 덮어주기 / 보온해주기 / 지주 세우기 / 유인 과 결순 따주기 / 부추의 포기 나누기 / 퇴비 / 텃밭정원의 무법자들 / 쇠뜨기풀로 만드는 자연농약 / 손쉽게 만드는 벌레잡이 톱 / 씨앗 (당근, 대파, 마늘, 무·배추, 수박, 시금치, 쪽파, 옥수수, 완두콩, 토마토·오이)

3장 텃밭정원 농사달력

4장 텃밭정원 채소 이야기

토마토 / 고추 / 가지 / 옥수수 / 딸기 / 오이 / 호박 / 수박 / 참외 / 감자 / 고구마 / 당근 / 무 / 생강 / 토란 / 양파 / 마늘 / 쪽파 / 대파 / 상추 / 시금치 / 양배추 / 브로콜리 / 컬리플라워 / 배추 / 양상추 / 스위스차드 / 메주콩 / 땅콩 / 참깨 / 들깨

5장 텃밭정원 허브 이야기

라벤더 / 로즈마리 / 메리골드 / 민트 / 바질 / 보리치 / 세이지 / 차이브 / 캐모마일 / 타임 / 한련화 / 쉐넬

6장 외국의 텃밭정원

라이트ن 오가닉 가든 / 윌딩 오가닉 가든 / 웨스트 던 가든 / 위슬리 가든

씨앗받는 농사 매뉴얼

저자 오도 그림 장은경

내가 직접 키운 작물, 내가 직접 받는 씨앗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생태농업전공부에서 농업 교사로 일하고 있다. 시골에서 태어나 유기농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호 된 농사일을 배웠다. 어린 시절에 배운 농사일과 일본의 게이센원예대학에서 배운 정원만들기를 텃밭정원 속에 담으며 소농의 길을 걷고 있다.

[교보문고 제공]



1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도의 씨앗농사 일기 1 - 첫 농사 첫 고민

자가채종

어떤 씨앗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오도의 씨앗농사 일기 2 - 농사의 기본은 씨앗

선발을 위한 기초 지식

교잡을 막는다

오도의 씨앗농사 일기 3 -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씨앗

무와 배추는 교잡하지 않는다

손이 많이 가는 박과

씨앗의 보관

오도의 씨앗농사 일기 4 - 농부육종가

보송보송 털이 많은 씨앗

당근 / 상추 / 쪽파

탁탁 떨어내는 씨앗

배추 / 무 / 브로콜리 / 청경채 / 시금치 / 아욱 / 근대 /

양배추 / 참깨 / 들깨 / 완두콩 / 팥 / 녹두 / 메주콩

쏘옥 골라내는 씨앗

파프리카 / 가지 / 고추 / 수박 / 호박

땅속에 숨어 있는 씨앗

토란 / 땅콩 / 생강 / 마늘 / 고구마 / 감자

날알이 많은 곡류

옥수수 / 조 / 기장 / 수수 / 벼

부록 - 풀무학교 학생들의 씨앗농사 일기

2부 작물별 씨앗농사 매뉴얼

후두둑 떨어지는 씨앗

양파 / 대파 / 쪽파 / 무주

따뜻하면 옷을 벗는 씨앗

토마토 / 오이 / 참외

이달의 영화 속 정원 테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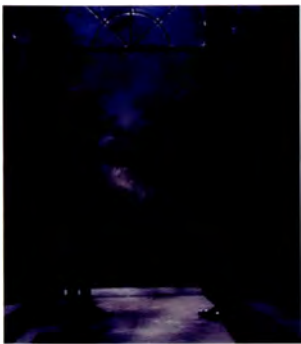
Greenhouse

온실

채소, 꽃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온도를 올려 수확기를 바꾸기도 하고, 온도가 낮아서 보통은 생산할 수 없는 작물을 만들기 위한 시설. 엄밀히 말하면 가온설비를 덧붙인 유리로 만든 방을 온실이라고 하고, 이에 반해 단순히 채광이나 보온을 위해 유리를 이용한 시설을 유리실이라고 한다. 유리실이나 온실 등의 재배지도 경지에 포함시킨다.



The Sound of Music (1965)



사랑에 빠진 마리아와 트랩대령이 만들어낸 검은 실루엣.

Synopsis

말갈랑이 수녀 지망생 마리아(줄리 앤드류스)는 수도원장의 추천으로 명문 트랩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간다. 해군대령인 트랩(크리스토퍼 플리머)은 2남 5녀인 아이들을 군대식으로 길들여 놓았다. 이런 집안에 들어간 마리아는 트랩 대령의 교육 방법에 반기를 들고 아이들을 바꾸어 놓는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다른 가정교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를 골탕먹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마리아와 잘 지내게 된다. 어느 날 대령이 후처가 될 수레더 남작 부인을 맞이하려 빈으로 떠나게 되자 마리아는 아이들과 더욱 친해져 커튼을 뜯어 아이들의 옷을 만들어 입힌 후 소풍을 가시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노래한다. 남작 부인의 환영 파티날 밤,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 속에 대령이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되고, 대령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 마리아는 사랑이 깊어지기 전에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 가는데, 아이들이 마리아를 데리러 온다. 결국 마리아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트랩가의 안주인이 된다. 트랩 대령의 첫째 딸은 나치의 광신도가 된 프리드리히와 사랑에 빠지는데, 대령은 아이들을 데리고 망명을 꿈꾼다. 대령과 마리아와 아이들은 음악 대회에 나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승이 발표되어 호명되지만 이들은 이미 자유를 찾아 스위스로 가기 위해 알프스를 넘는다.



트랩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게되는 수녀지망생 마리아가 수도원의 정원을 지나가고 있다.



자유분방한 마리아는 트랩가의 아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심어주고 싶어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려하지만 정원 옆 유리하우스의 안을 보는것 처럼 감추기가 쉽지않은 않다.



영화 첫장면에 나오는 잘꾸여진 정원과 성.



정원에 있는 분수대

BOOK & FESTIVAL

꽃을 볼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시기.

한 해의 마지막 꽃은 어떤 꽃을 보러갈까? 아직 늦지 않았다. 시간과 카메라만 있다면...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2014

불로장수 및 상서로운 영초로 시민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청초한 아름다움과 그윽한 향기, 강한 번식력과 적응성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있어, 시의 무궁한 발전과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하는 국화의 향연을 준비중에 있다.

기간 2014.10.24 ~ 2014.11.02

장소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322 (아양동)

주최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문의 063-859-4977/4334 <http://gukhwa.iksan.go.kr>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2014

국화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2000년부터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야제, 공연 및 경연행사, 특별행사로 축제의 불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국화를 일상생활에 접목한 다양한 체험거리도 즐길 수 있다.

기간 2014.10.24 ~ 2014.11.02

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1가 46-3

주최 창원시/가고파국화축제위원회

문의 055-225-2341, 225-3706 <http://festival.changwon.go.kr>

대한민국 국향 대전 2014

4계절 내내 볼거리가 풍성한 관광 함평을 만들기 위해 2004년 가을에 시작되었으며 국화로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국화하기 그윽한 풍요로운 함평천제'라는 주제아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가을 곤충이 관람객의 눈길을 유혹하며 고향의 향수가 물씬 풍기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꾸며진다.

기간 2014.10.24 ~ 2014.11.09

장소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 (함평읍)

주최 함평군/함평축제추진위원회

문의 061-320-3364 <http://www.hampyeong.go.kr/>

장성 백양 단풍축제 2014

노령의 정기를 담은 백양산의 기암괴석과 천연기념물인 비지나무 숲속의 천년 고찰 백양사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오색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하순~11월 초에 백양단풍축제를 개최한다

기간 2014.10.31 ~ 2014.11.02

장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주최 장성군 축전위원회

문의 061-392-7502 <http://www.baekyangsa.kr>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의 축제

한 해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10월에 세계 각지에서는 각종 기념 축제들이 펼쳐진다.
아이들을 위해, 나라와 도시의 성인들을 위한 축제들을 알아보자.

할로윈데이

미국의 명절과 같은 범국민적인 축제날이 되어버린 할로윈은 10월의 마지막 날이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10월초부터 이 할로윈 준비에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10월초에는 세계 모든 호박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무게 및 크기를 놓고 경쟁을 하여 왕호박 콘테스트를 벌이기도 하고 10월 중순부터 할로윈 전까지는 "Trick-or-treats"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분장을 하고 이웃 집을 돌며 사탕을 받아오는 풍습과 가장 행렬, 기차와 조랑말 타기, 호박 조각전시, 호박 파이 먹기 대회 등 어린이를 위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열리게 된다.



할로윈데이는 미국을 거쳐 국내에도 상륙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할로윈축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축제를 즐기는 방법이 다소 변형된 모습이 보인다. 어린아이들이 집집마다 돌러 사탕을 받아가는 모습보다는 호박가면, 귀신변장 등 다소 호러스러운 분장을 하고 클럽등지에서 나름의 축제를 즐기고 있다. 본연의 의도와는 다소 변형되긴 했지만 할로윈을 함께 즐기는 모습은 피부색과 문화적 차이를 떠나 우리나라만의 개성있는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필리핀 잠보앙가 "헤르모사" 축제

필리핀의 모든 길은 잠보앙가라고 통한다고 할만큼 웅장한 축제인 헤르모사축제는 잠보앙가 시를 수호한다는 성인 '누에트라 세 노라 델필라'를 찬양하는 행사로서 이 기간 중에 잠보앙가시와 개인 기관 및 단체에서 준비한 여러 종교의식과 문화행사, 전시회 및 미스 잠보앙가 선발대회가 열린다. 메트로 마닐라의 퀘손 시의 주요 거리에서부터 도밍고 교회까지 행렬이 진행되며, 다양한 사회 문화적 활동으로 시작을 알리게 된다. 또한 이 축제는 1646년 독일 약탈자들과의 해전을 기리는 축제이며, 잠보앙가를 비롯하여 팜팡가 주의 앙헬레스에서도 펼쳐진다.



독일의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

맥주를 빼놓고는 독일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맥주는 독일의 상징적인 존재 중 하나가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매년 9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2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맥주의 축제가 열린다. 그 중 뮌헨대학 인근의 테레지아 구릉지에서 열리는 '옥토버페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최대 규모의 맥주축제이다. 축제장 한가운데에 설치된 거대한 천막 안의 맥주홀에서는 인종과 나이에 관계없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머그잔을 높이 들어 큰소리로 건배하며, 유명한 '축제의 노래'를 부르고, 민속밴드의 흥겨운 연주에 맞춰 어깨동무한 채 춤추며 몸 속의 열정을 쏟아 부는 모습은 과연 장관이다. 또한 이 축제에서는 매년 약 5백만 리터의 생맥주와 60만 마리의 닭, 40만개의 소시지 등 엄청난 규모의 음식이 소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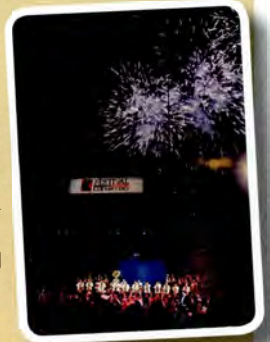
일본 이케가미 혼몬지의 "오에시키"

'오에시키'는 일본 불교의 종파인 니치렌의 창시자인 승려 니치렌을 기리는 행사이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오에시키' 중에서도 이케가미 혼몬지의 행사는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다. 가장 큰 볼 거리는 등불행렬로써, 니치렌 성인이 돌아가셨을 때 정원의 벚꽃이 때 아니게 꽃을 피었다는 일화에서 유래된 만등을 보탑에 장식하여 행렬의 앞에서 인도하며, 그 뒤로 벚꽃으로 장식한 초롱불을 든 총인원 약 3000명이, 이케가미역 주변에서부터 혼몬지까지의 약 2 km를 행진한다. 매년 35만 명의 참배자가 방문하는 대규모행사이며, 이 행사는 인터넷으로 라이브 중계도 실시된다.

멕시코의 세르반티노 축제

세계 4위의 대규모 종합예술축제인 세르반티노 축제는 소설 돈키호테를 쓴 "미겔 더 세르반테스"에게 헌정하는 의미의 축제로 유명하다. 매년 10월 중 20일간 열리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으며, 세계각국 2천여명의 예술가들이 참석해 콘서트, 발레, 미술전시, 오페라 등 예술무대를 보여주는 축제이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며, 이길 수 없는 적과 맞서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딸 수 없는 밤하늘의 별을 따라 했다"며 불가능을 꿈꾸던 돈키호테가 간절히 원하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제가 아닐까.



정기구독

16.6% OFF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 할인권 제공
-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십시오.
- 정기구독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 무통장입금 : 농협 **355-0030-2359-03** [우리꽃영농조합법인]
- 문의전화 : **031-712-7009**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할인권을 제공
- 꽃씨증정

문의전화

Tel **031-712-700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40% 할인권

[기간] 2014. 10. 1 ~ 2014. 10. 31

Gardenin

정원을 만들 때부터 가든인! 가든인은 왜이렇게 되었을까?
가든인이란 무엇인가? 가든인! 가든인! 가든인! 가든인! 가든인!
가든인! 가든인! 가든인! 가든인! 가든인! 가든인! 가든인! 가든인!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십시오.

사연이 채택된 독자분께는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초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기구독

16.6% OFF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무통장입금
예금주 : 농협 **355-0030-2359-03**
우리꽃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입금 후 반드시 문자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
가능합니다.)

문의 : **031-712-7009**

Gardenin

Gardenin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기구독 1년 12권

신청하시는분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 약탈한 무명영상을 위해 정회원 주소는 자동적으로 입력됩니다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355-0030-2359-03	예금주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 할인권

[기간] 2014. 10. 1 ~ 2014. 10. 31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사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출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Gardenin

받는 사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Gardenin

받는 사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편집후기

가을이다.
노란, 빨강 낙엽이 팔랑거릴
가을이 오는 문턱이다.

남산에... 북한산에... 단풍이 물들기름...

오르긴 않음니다.
하지만 물리도록 봐줄테니!...
어서 물들여라... 물들여...

발행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리씨드(UniSeed)그룹 대표 / 이학현
고문 이순영 前 한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이명
전문위원 김광두 前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원원예중요(주) 대표
김귀순 (주)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원식 농학 박사 / 씨드림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항원회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
윤명섭 상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책임기자 김지태 기자
황주리 기자
디자인 WorkingCow42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in





BALTISCHER WEISSSTORF
30L / 150L
(블루베리용, 육묘용)



Palmoss

GRAMOFLO
GERMANY
qualität von anfang an!

10L / 20L / 45L
(육묘, 분갈이, 파종)



피트모스?
예전 유럽에서는 전쟁 중 병사가 부상을 당했을때 지혈제 대신 피트모스를 사용했을 정도로 무균상태의 깨끗한 천연토양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배양토로 부피의 89%가 수분 상태로 이루어져 물과 공기가 이상적인 비율로 함유되어 통기성 및 보수력이 매우 우수한 고급토양이다.

모든 가드닝 원예자재를 한자리에

(주)한국원예자재
- 가드닝, 원예전문 전시/판매장
미림가든센터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주암동)
Tel. (02)585-5346, 503-7080

검색창에 '조이가든' 을 검색해 보세요. ▼ 검색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객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카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타워드온행(구 제일은행)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타워드온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타워드온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인차 및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